

青少年 犯罪行動 誘發 要因에 대한 心理學的 研究

The Psychological Research on the Inducing Factors of Criminal Behavior

元 鎬 澤 著

青少年 犯罪行動 誘發 要因에 대한 心理學的 研究

The Psychological Research on the Inducing Factors of Criminal Behavior

元 鎬 澤 著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저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발 간 사

최근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는 성인범죄 못지 않게 날로 흉포해지고 집단화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불안 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사회학적인 연구나 인구학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가 그 주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정신병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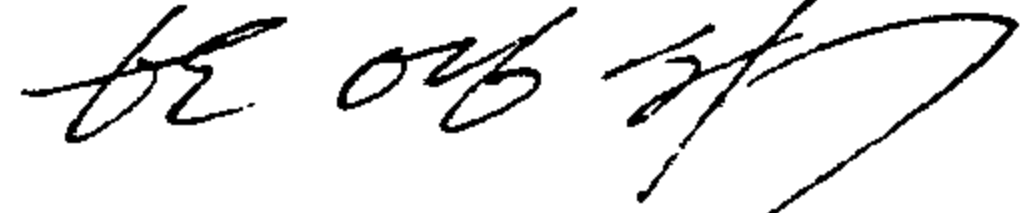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출간되는 서울대 원호택 교수의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 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청소년 범죄자들의 심리적 요인과 그들이 처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우기 청소년 문제는 가정, 학교, 사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때, 이 연구가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분위기, 자녀 양육 방식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범죄에 접근하게 되는 심리적, 상황적 특성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 것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청소년들의 범죄행동을 이해하고 그들의 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에 보탬이 되고, 아울러 범죄행동의 예방과 치료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의껏 이 연구를 수행해 주신 원호택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구에 협조해 주신 소년원 직원 및 원생 여러분 그리고 일선학교의 교사 및 학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1. 5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원장 

目 次

第1章 序 論

1. 個人性格 要因	14
2. 兒童初期의 社會文化的 要因	17
3. 狀況的 要因	18

第2章 研究方法

1. 調査對象者	23
2. 研究節次 및 道具	24
가. 兒童初期의 社會文化的 要因	24
나. 個人性格 要因	27
다. 狀況要因	31
3. 資料의 分析	34
가. 一般집단과 犯罪집단과의 比較分析	34
나. 犯罪집단과 一般집단을 判別해주는 요인들	34
다. 犯罪집단의 유형별·학력별 比較 분석	34

第3章 結 果

〈결과 1〉 一般집단과 犯罪집단과의 比較분석	37
1. 兒童初期의 社會文化的 要因	37
가. 부모의 양육태도	37
나. 면접결과	38
2. 個人性格 要因	48

가. 自我概念 檢査	48
나. 性格次元 檢査	49
다. 其他性格 尺度들	49
3. 狀況要因	50
가. 스트레스 정도	50
나. 스트레스 對處	52
다. 中學成績	52
〈결과 2〉 犯罪 집단과 一般집단을 判別해 주는 要因들	53
1. 兒童初期의 社會文化的인 要因	53
2. 個人性格 要因	55
3. 狀況要因	56
4. 綜合內 分析	58
〈결과 3〉 犯罪 集團 分析	60
1. 犯罪類型에 따른 分析	60
2. 學校脫落時期에 따른 分析	61
3. 犯罪類型과 學校脫落時期의 關係	63
第 4 章 論 議	
1. 個人性格 要因	67
2. 狀況要因	68
3. 兒童初期의 社會文化的 要因	69
4. 各 要因別 犯罪行動과의 關係性	69
5. 犯罪類型과 學校脫落時期別 분석	71
參考文獻	78
附 錄	85

表 目 次

〈표 1〉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犯罪에 관한 心理學的 論文 現況	13
〈표 2〉 범죄 집단의 학력 및 범죄유형	23
〈표 3〉 두 집단간 父양육태도의 비교	38
〈표 4〉 두 집단간 母양육태도의 비교	39
〈표 5〉 어린 시절의 주 양육자	40
〈표 6〉 부모와 동거여부	40
〈표 7〉 父 및 母의 사망여부	41
〈표 8〉 父 및 母의 문제여부	42
〈표 9〉 부모의 이혼여부	42
〈표 10〉 친부모 여부	43
〈표 11〉 각 선형적 로그함수 기법에서 모수치 추정	47
〈표 12〉 출생순위	47
〈표 13〉 두 집단의 自我概念 檢査의 비교	48
〈표 14〉 두 집단의 性格次元檢査의 비교	49
〈표 15〉 두 집단의 其他 性格檢査의 비교	50
〈표 16〉 두집단간 스트레스 정도의 비교	51
〈표 17〉 두 집단간 對處방식의 비교	52
〈표 18〉 각 선형적 로그함수 기법에서 모수치 추정	52
〈표 19〉 判別變因과 定準判別函數計數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54
〈표 20〉 判別결과	55

〈표 21〉 判別變因과 定準判別函數計數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56
〈표 22〉 判別결과	56
〈표 23〉 判別變因과 定準判別函數計數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57
〈표 24〉 判別결과	58
〈표 25〉 判別變因과 定準判別函數計數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59
〈표 26〉 判別결과	59
〈표 27〉 犯罪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척도들의 비교	60
〈표 28〉 犯罪유형과 父의 문제여부	61
〈표 29〉 학력변인과 관련을 보이는 변인들	62
〈표 30〉 범죄 유형과 학교 탈락 시기의 관계	63

그 립 목 차

〈그림 1〉 칭찬의 원천	43
〈그림 2〉 칭찬의 원천	44
〈그림 3〉 국민학교 성적	45
〈그림 4〉 사회경제적 지위(SES)	46
〈그림 5〉 중학교 성적	53

要 約

本 研究에서는 犯罪 청소년과 一般 고등학생들이 個人 性格 要因, 初期 社會文化的 要因, 狀況的 要因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였으며, 아울러 犯罪 청소년들을 犯罪 유형별로 強力犯과 其他犯으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학교탈락 시기별로 중학 중퇴자와 고교 중퇴자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조사대상자로 少年院生을 犯罪 집단으로 선발하였으며, 그들과 동년배의 一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비교집단으로 선발하였다. 비교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個人 性格 要因에 있어서는, 犯罪 집단이 一般 집단에 비해 자기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도덕적으로 더 낮은 가치규범을 가지며, 가정에서의 갈등과 불만이 더 많은 반면에, 자신의 신체상은 더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반영하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犯罪 집단이 一般 학생에 비해 더 공격적이고 냉담하며 동정심이 부족하였으며, 실패추구 경향성이 높았고, 衝動統制力의 부족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 성격 특성들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狀況 要因에 있어서는, 犯罪 청소년들이 一般 학생들보다 전체 스트레스 점수상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대인관계, 가정문제, 이성관계, 가치관 문제, 신체관련 영역, 경제문제 등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으며, 공부나 학교 생활상의 문제등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서는 두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初期 社會文化的 要因에 있어서는, 犯罪 청소년들이 一般 학생들에 비해 부

모로부터 더 적대적인 방식으로 양육되었으며, 통제적인 면이나 일관성 있는 규제, 성취격려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결핍된 방식의 양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犯罪 청소년의 가정에서 부모의 별거, 이혼, 사망의 비율이 높았고, 부모가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각 요인별 犯罪行動과의 관련성을 判別函數 分析을 통하여 알아보았는데, 犯罪 집단과 一般 학생들은 변별하는 판별력이 개인 性格 要因에서는 74.58%, 狀況 要因에서는 85.3%, 初期의 社會文化的 要因에서는 84.17%가 나왔으며, 이들 3가지 要因들을 종합하였을 때의 판별력은 94.1%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각각의 要因이 개별적으로 계산된 것보다 훨씬 높은 판별력을 나타냈다.

犯罪 청소년을 強力犯과 其他犯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를 보면, 強力犯 집단이 其他犯 집단에 비해 強忍性 척도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성격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았고, 父의 문제행동이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 중퇴자와 고교 중퇴자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를 보면, 중학 중퇴자가 고교 중퇴자에 비해 더 높은 실패추구 경향을 보이고, 母가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으며 국교 성적이 낮은 경우가 더 많았으나, 나머지 변인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論議 부분에서는 本 研究 결과를 先行 研究 결과들과 비교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앞으로의 研究方向을 제안하였다.

첫째, 本 研究에서는 犯罪行動을 한 후 少年院에 수용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研究를 했는데, 후속 研究에서는 犯罪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 즉 중고등학교에서 퇴학하거나 중도 탈락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研究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本 研究에서는 初期 社會的 경험 및 과거 경험 이 犯罪 性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초기 환경 要因을 보다 분명히 하여 이러한 要因들이 性格 要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犯罪 誘發 性格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밝히는 研究가 필요하며, 나아가서 性格 要因이 狀況的 스트레스, 對處方式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밝히기 위해 좀더 세련된 研究방법에 의한 研究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本 研究에서 여러 要因들을 함께 고려할 때 犯罪 집단과 一般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判別力이 높게 나왔는데, 이런 결과가 다른 犯罪 집단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결과가 少年院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이나 少年院으로 오지않고 가정으로 선도조치된 非 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研究했을 때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이런 研究들이 뒷받침된다면 犯罪豫測 尺度를 개발하는 研究도 가능해질 것이다.

第 1 章 序 論

第1章 序 論

최근 청소년 犯罪가 날로 흉폭해지고 폭력 및 강간범등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 犯罪에 대한 사회학적인 연구나 인구학적인 특성은 분석 연구되어 왔으나 청소년 犯罪의 심리적인 특성을 밝히는 연구는 별로 없었다. 특히 犯罪人들의 개인 심리적 요인과 그들이 처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연구되기 시작했다(원호택과 이민규, 1990).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 犯罪에 관한 연구를 개관해 보아도 심리학적 연구가 아직 미미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개관한 바로는 90여편의 심리학적 연구가 있었는데 그중 개인 심리적 특성이나 정신병리적 특성을 단편적으로 연구한 것이 40여편으로 가장 많았다(표 1참조). 이런 개인 심리적 연구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이나 사회학적 접근에서 밝히지 못하는 犯罪人의 개인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만, 반면에 犯罪行動을 지나치게 개인적인 특성에 귀결시키거나 이를 병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것이 문제된다.

〈표 1〉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犯罪에 관한 心理學的 論文 現況

연 구 주 제	소 년 범 죄	성 인 범 죄
심 리 적 연 구	17	2
환 경 연 구	8	—
치 료 및 선 도 연 구	20	1
심 리 장 애 연 구	22	2
일 반 요 인	18	—
기 타	2	—

이와는 달리 같은 심리학적 접근이라 하더라도 犯罪行動도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습득하는 것으로 보고 개인과 환경의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연구가 있는데, 이런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원호택 등, 1990).

본 연구에서는 犯罪 청소년들의 개인적 성격 특성을 알아보고, 나아가 犯罪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기의 社會文化的 특성으로 가정의 분위기나 자녀 양육 방식을 알아볼 것이고 또한 청소년들이 실제 犯罪에 접근하게 되는 중 고교 시기의 심리적, 상황적 특성들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같은 연구는 비행 행동을 이해하고, 청소년 비행을 예측할 수 있는 非行豫測 尺度를 개발하는데 필수적이며, 아울러 犯罪行動의 예방과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같은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기존 연구결과를 개관하면서 犯罪行動과 관련이 높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이렇게 검토된 청소년 犯罪과 관련된 개인의 성격 특성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그리고 상황적 요인을 간단히 개관하기로 한다.

1. 個人性格 要因

犯罪行動과 관련된 성격요인을 찾으려는 연구는 지금까지 두가지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Eysenck(1964, 1970), Button(1963)등은 犯罪行動과 관련된 성격특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연구자들은 犯罪과 관련된 성격특성은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다.(Mitchel, 1968 : Hindelang, 1972). 여기

서 우선 Eysenck와 그의 동료들이 性格次元과 犯罪行動과의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한 것에 기초하여 그의 內向的·外向的 성격, 神經症 차원 그리고 強忍性(精神症)차원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Eysenck는 內向性과 外向性 성격을 구분하여, 內向性은 생리적으로 각성 수준이 높은데 반하여 外向性은 각성 수준이 낮아서 자극을 찾게 된다고 했으며, 外向性의 경우에 적은 양의 술로 중추신경계의 억압이 완화되면 犯罪를 쉽게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나머지 성격차원으로 神經症的 차원과 強忍性 차원을 들었다. 神經症的 경향이 높은 사람들(정서가 불안정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극에 대하여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고통의 자극에 대해서는 지나친 공포 반응을 나타낸다. 어떤 행동을 시작하면 반복적으로 하는 경향이 높고, 이런 神經症的인 성향이 높으면서 외향적인 성향이 높은 사람은 犯罪行動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強忍性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경향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무감각하고, 감정표현이 없고, 위험을 무시하고, 타인을 싫어한다)은 반사회적 성격장애자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며 再犯率도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Eysenck의 犯罪人의 성격연구를 바탕으로 그의 세가지 성격차원을 조사요인으로 선정하였다.

犯罪行動과 관련성이 높은 다른 성격 요인으로 외부환경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을 들 수 있겠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거나 자신의 반응에 따라 처벌이나 보상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을 內部統制者(internal locus of control)라고 하고, 반면에 자신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고 믿거나 만사가 운수에 달려 있다고 믿는 사람을 外部統制者(external locus of control)라고 한다(Rotter, 1954). 이런 內外統制 유형은 공격 행동과 상관이 있으며, 外部統制者들은 內部統制者들에 비해 공격 행동이 목표달성 수단이 못된다고 믿기 때문에 공격 행동을 덜하고

(Kagner, 1975), 內部統制者들은 외부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력히 믿기 때문에 공격이나 폭력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Baron, 1977; Dengerink, O'Leary, & Kasner, 1975).

또 다른 성격 요인으로 衝動統制 성향을 들 수 있겠는데, Megargee(1966, 1976)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過小統制型과 過剩統制型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극단적인 공격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공격적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에게 그의 억제수준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촉발자극이 주어지면 심한 공격적 행동이 나타남을 보고하였고, 경미한 폭력범보다 극단적인 폭력 犯罪人에게서 이러한 성격 특성이 더 많이 관찰됨을 보고 하였다. Eysenck(1970)도 外向性を 충동성과 사회성으로 구분해서 연구한 결과, 충동성이 犯罪行動과 관련되고 사회성은 관계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관성있게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McGurk, 1978; Howells, 1983; Henderson, 1983). 이러한 결과들은 衝動統制 성향이 犯罪行動과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성격특성외에 自我概念(구경모, 1977), 抑壓-敏感化 性向, 失敗追求 動機등의 성격 특성들을 犯罪와 관련이 높다고 여겨지는 요인으로 보고,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개인적 성격 특성들은 개인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행동이나 인지, 감정양식을 나타내는데, Eysenck는 内外向性이나 衝動統制 性向 등의 성격 특성은 개인의 生來的인 소질과 관련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성격특성은 개인이 성장하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内外向性은 다른 성격 특성들보다는 유전적인 소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는 달리 内外統制所在, 自我概念, 抑壓-敏感化 性向, 失敗追求動機, 스트레스 對處양식 등의 성격 특성에는 유전적 소질요인보다 환경적인 경험 요인이 더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에서는 생래적 소질이나 경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성격특성을 구분하지는 않았다.

2. 兒童初期의 社會文化的 要因

犯罪行動의 유발에 높은 관련성을 갖는 요인으로 개인의 인생초기의 社會文化的 要因을 들 수 있다(원호택 등, 1990). Farrington(1989)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빈약한 방식의 아동 양육, 부부의 불화나 이혼등 부부사이의 문제, 부모가 갖고있는 적응 문제, 부모의 犯罪등 사회화 방식의 곤란, 부모의 無職과 경제문제 그리고, 유아기의 어머니의 상실등이 자녀의 犯罪行動을 예측하는데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아동기의 社會文化的 요인은 규범을 내면화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부모의 훈육방식은 犯罪行動의 억제력을 학습하는데 영향을 미친다(Feldman, 1977). 외국에서는 발달심리학과 이상심리학 분야에서 부모의 아동 양육방식과 犯罪유발 성격 특성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이미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들은 주로 일관성없는 훈육방식, 신체적 체벌의 심한 정도, 부모의 충동성 등의 심리적 요인을 비교했는데, 그 결과에서는 신체적 체벌이 심하고 훈육의 공평성이 결여될수록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고(Button, 1973), 부모의 충동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충동성도 높고, 이런 청소년들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犯罪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요인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논문이 몇편 있었으나(나 철, 이길홍, 민병근, 1984; 이봉소, 1974, 유광수, 1976), 이런 연구는 소규모로 진행되고 주로 犯罪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의 가정요인을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연구에 그쳤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여러 차원으로 나누어서 알아보기로 하였

다. 또한 아동 양육태도뿐 아니라 아동의 생활환경으로서의 부모관계, 부모喪失 여부, 그리고 사회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적응행동과 문제행동 등을 주요 문화적인 요소로 선정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3. 狀況的 要因

Krebs와 Miller(1985)는 폭력행동을 일으키는 개념 모형을 제시하면서 개인의 유전적 소질이나 문화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개인의 성격특성 못지않게 주요한 요소로서 상황적인 요인을 들고 있다. 최근 청소년 범죄를 연구한 김준호(1989)는 대학진학의 압력적인 상황이 청소년 범죄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는 인간의 이상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적인 요인으로서 중요역할을 하는 스트레스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즉 청소년 犯罪人들이 범행을 처음으로 일으킨 중 고교 시기에 개인이 겪었던 스트레스의 영역과 정도에서 얼마나 압박을 받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개인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犯罪行動이 유발된 당시의 직접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개인이 경험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현상적 상황을 구성하며, 이러한 상황의 압력을 적절히 대처해 나가기에 더 힘이 들면 힘들수록 불안, 우울 및 非行行動을 포함하는 이상행동을 더 쉽게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인의 성격특성에서 언급하였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하는 것도 상황의 압력 극복에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라 犯罪行動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대처방식도 조사 요인에 포함시켰다.

위에 언급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와 기존에 이루어진 犯罪 연구와의 차이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犯罪行動을 습득했다고 보는 社會學習理論的인 입장에서 개인 성격특성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犯罪行動에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할 때 한두가지 정도의 성격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반해, 현재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여러 성격 특성들이 함께 犯罪行動에 영향을 미치며, 여러 성격특성들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犯罪行動을 더 잘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犯罪行動과 관련되는 여러 심리적 특성을 함께 측정하여 연구한 점을 들 수 있으며,

세째, 연구방법 면에서는 질문지와 면접을 동시에 사용하여 연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러 질문지를 사용하여 개인의 성격 특성, 부모의 양육 방식, 개인의 스트레스를 조사했으며, 면접을 통해 어릴 때의 양육환경, 부모의 문제 행동에 대해 더 조사해 보았으며, 국교, 중학시기의 성적 등 필요한 정보를 보충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통제집단으로 사용하여 犯罪 청소년들과 비교함으로써 犯罪行動과 관련된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들간에 비교 연구를 한것은 정규고등학생들과 犯罪 청소년들간의 성격 특성, 부모의 양육 방식, 상황적 특성에서의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犯罪 청소년들이 犯罪 類型이나 犯罪 時期 등에 따라서 각기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중학교 중퇴자와 고교 중퇴자로 나누어 비교했으며, 強力犯과 其他犯으로 나누어 이들 집단간에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비교연구를 했다. 나아가서 분석방법으로 判別函數 分析을 하여 각각의 심리적, 상황적 요인들이 어느 정도 犯罪行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第2章 研究方法

第 2 章 研 究 方 法

1. 調査對象者

경기도 내에 있는 한 소년원에 在所중인 청소년 140명을 犯罪 청소년 집단 (이하 犯罪 집단으로 표기)으로 하고,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교 2학년 학생 100명을 一般청소년 집단(이하 一般 집단으로 표기)으로 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犯罪 집단의 평균 연령은 17.8세(표준편차 1.72)로, 一般 집단의 평균 연령인 16.8세(표준편차 .64)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238)=5.71, p=.00$). 그리고 犯罪 집단과 一般 집단의 성원 모두가 남자였다.

〈표 2〉 범죄 집단의 학력 및 범죄유형

	고 졸	고교중퇴	중 졸	중학중퇴	계
범죄 유형					
강도	3	10	3	12	28(20.0%)
강간	1	5	0	5	11(7.9%)
절도	2	4	5	37	48(34.3%)
폭행	3	10	2	16	31(22.1%)
약물	0	7	1	5	13(9.3%)
기타 경범죄	0	2	0	1	3(2.1%)
특가법	0	1	0	3	4(2.9%)
결측치	0	0	0	2	2(1.4%)
계	9(6.4%)	39(27.9%)	11(7.9%)	81(57.9%)	140(100%)

犯罪 집단에 속하는 소년범들의 학력과 犯罪 유형은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다. 犯罪 집단 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犯罪 집단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먼저 犯罪의 攻撃性여부에 따라 집단간에 어떤 차이가 드러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소년범을 強力犯 집단과 其他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強力犯 집단은 강도, 강간, 폭행 및 특가법 위반자 등 공격적 犯罪에 관련된 74명으로 구성되었고 其他犯 집단은 절도, 약물 및 其他犯등 비공격적 犯罪에 관련된 64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학교 중도탈락의 시기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中學 中退 집단(39명)과 高校 中退 집단(81명)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2. 研究節次 및 道具

본 연구의 資料收集은 1990년 3월부터 9월까지 소년원과 대상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와 面接을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먼저 犯罪 집단과 一般 집단을 각각 3회 방문하여 自我概念, 性格 特質, 스트레스 경험의 정도, 스트레스에 대한 對處 良識, 父母의 養育態度를 측정하는 設問紙를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그후 여러차례(소년원 8회, 고등학교 3회)의 방문을 통해서 두 집단 모두에게 설문지에서 측정되지 않은 가정 환경과 국민학교 및 중학교에서의 성적에 대한 사항들을 개인 面接을 통해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設問紙와 檢査 및 面接 내용을 兒童初期의 社會文化的 要因, 個人 性格 要因, 狀況 要因으로 나누었다. 兒童初期의 社會文化的 要因은 20개의 변인으로 되어 있고, 個人 性格 要因은 18개의 변인으로, 그리고 狀況 要因은 17개의 변인으로 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兒童初期의 社會文化的 要因

(1) 父母 養育 行動 尺度

이 척도는 母의 양육행동 척도(박성연, 1989)를 개작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문항(43문항, 5점 척도)을 母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父에 대해서도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57에서 .80에 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성연, 1989). 이 척도는 다음의 8개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가) ‘애정’

하위척도(9개 문항)는 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자녀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녀에 대한 존중, 자녀의 요구에 대해 민감한 태도 등을 측정한다.

나) ‘적대감’

하위척도(6개 문항)는 자녀에 대한 거부, 불만, 비난이나 무시하는 것,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등 적대적인 태도를 측정한다.

다) ‘통제’

하위척도(5개 문항)는 자녀의 충동에 대해 통제하거나 제약하며, 강제성을 보이거나 간섭을 하는 태도를 측정한다.

라) ‘과보호’

하위척도(4개 문항)는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뒷바라지를 하는 태도를 측정한다. 반면에 이 척도에서 낮은 점수는 독립적인 행동을 권장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격려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마) ‘일관성 있는 규제’

하위척도(3개 문항)는 자녀에게 정해 놓은 규칙을 지키고 따르게 하는데 대해 자신감이 있고 일관적이어서 자녀가 예측할 수 있는 부모의 태도를 측정한다.

바) ‘적극적인 참여’

하위척도(4개 문항)는 자녀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을 측정한다.

반면에 이 척도에서 낮은 점수는 자녀와 관련된 일에 무관심하고, 소극적이며, 방관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사) ‘합리적인 지도’

하위척도(8개 문항)는 자녀의 행동에 관련된 결과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하며, 잘못을 지적해 주는 태도를 측정한다.

아) ‘성취’

하위척도(4개 문항)는 자녀의 지적인 행동에 관한 부모의 관심 및 배려의 태도를 측정한다.

(2) 面 接

주로 가정 환경에 대한 사항과 국교 때의 성적을 조사하였는데, 구체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가) ‘친부모 여부’

친부모인 경우와 친부모가 아닌 경우(偏父, 偏母, 養父인 경우, 養母인 경우, 養父母인 경우, 父母가 없는 경우를 포함)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나) ‘국민학교 입학이전 부모와의 동거여부’

양친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와 별거의 경우(父와 별거하는 경우, 母와 별거하는 경우, 양친 모두와 별거하는 경우를 포함)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다) ‘현 시점으로 부터 6개월 이전을 중심으로 한 부모와 동거여부’

양친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와 별거의 경우(父와 별거하는 경우, 母와 별거하는 경우, 양친 모두와 별거하는 경우를 포함)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라) ‘父母의 이혼 여부’

이혼 문제가 없는 경우와 이혼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이혼, 별거,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를 포함)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마) ‘父와 母의 생존여부’

父母 각각에 대해 생존해 있는 경우와 사망한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바) ‘父와 母의 적응상의 문제’

아무런 적응상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경우와 신체적인 질병, 정신과적인 장애, 犯罪, 알콜중독, 폭력, 가출, 실직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사) ‘칭찬과 벌’

가족 구성원 중 주로 누구에게 칭찬과 벌을 받으며 성장하였는지를 칭찬 및 처벌을 주로 양친에게 받는 경우, 주로 父에게서 받는 경우, 주로 母에게서 받는 경우, 그밖의 다른 가족 구성원(형제, 조부모 등)에게서 받는 경우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아) ‘어린 시절의 주양육자’

父나 母가 양육한 경우(양친이 모두가 양육한 경우, 주로 父가 양육한 경우, 주로 母가 양육한 경우를 포함)와 그밖의 다른 사람(형제, 조부모, 친척, 유모 등)이 양육한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 자신을 포함한 ‘형제의 수’

차) ‘출생순위’

카)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상/중/하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타) ‘국민학교 성적’

상/중/하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나. 個人性格 要因

1) 自我 概念 檢査(정범모, 1989)

모두 1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상에서 대답하게 되어 있는데, 각 하위 척도의 결과는 고등학교 규준에 따라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이 검사는 다음 10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하위 척도들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5에서 .99에 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가) ‘자기평가’ 하위척도

방어적인 태도의 정도와 자기비판의 능력 등을 측정하는 척도인데, 높은 점수는 비방어적인 태도와 자기비판의 능력을 나타내나, 반면에 낮은 점수는 방어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나) ‘총自我 긍정’ 하위척도

개인의 전체적인 자기존중감을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다) ‘自我 정체성’ 하위척도

개인이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지각하는지를 나타내는데, 이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심이 강하고 자긍심이 높다.

라) ‘自我 수용’ 하위척도

자기 만족과 수용의 정도를 말해 준다.

마) ‘自我 행동’ 하위 척도

개인이 행동하는 방식(적극적 혹은 소극적인 방식)을 나타낸다.

바) ‘신체적인 자아’ 하위척도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건강상태, 외모, 성적 매력 등)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반영한다.

사) ‘도덕적인 자아’ 하위척도

도덕적인 준거체계가 높거나 낮은 정도를 나타낸다.

아) ‘성격적인 자아’ 하위척도

성격특징이 바람직하거나 안정된 정도를 측정한다.

자) ‘가정적 자아’ 하위척도

가정에 대한 만족(불만족)의 정도와 불화, 가정에 대한 갈등과 적대감의 정도를 측정한다.

차) ‘사회적 자아’ 하위척도

원만한 대인관계의 여부를 측정한다.

(2) 性格 次元 檢査(Eysenck와 이현수, 1985)

이 검사는 모두 79개 문항에 대해 예/아니오의 방식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는데, 각 하위척도의 결과는 고등학교 규준에 따라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이 검사는 다음 4개의 성격차원을 측정하는데 이들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는 .55에서 .82에 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ysenck와 이현수, 1985).

가) ‘강인성(toughmindedness)’ 혹은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
차원

점수가 높은 사람은 공격적이며 정신적으로 냉담하다. 동정심이 없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감정에 대해 둔감하며, 충동적이고 자기 中心的이다. 별난 취미를 가지기도 하며, 고독을 즐기며, 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또한 잔인하고 무자비한 특성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적당한 수준은 창조적 능력이 풍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나) ‘외향성-내향성(extraversion-intraversion)’ 차원

이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사교적이며 많은 친구를 사귄다. 활동적이며 생기가 넘치고, 기분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변화가 심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

다) ‘정서성(emotional)’ 혹은 ‘신경증적 경향성(neuroticism)’ 차원

이 점수가 높은 사람은 수면 장애가 있고, 정신신체적 질병을 호소하며, 정서적인 반응이 예민하며 쉽게 원상복구되지 않는다. 조그만 스트레스에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며, 쉽게 우울해지는 등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

라) ‘허위성’ 척도

자신의 감정노출을 억제하며 소박한 사회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도를 측정한다.

(3) 失敗 接近 尺度(차재호와 안미영, 1990)

이 검사는 모두 24개 문항에 대해 7점 척도상에서 대답하게 되어 있다. 이 검사는 개인이 실패에 접근하려는 動因을 측정하는데, 실패에 가치를 두며, 실패를 지향하는 행동이나 습관 또는 경향성을 표현하는 능동적 실패지향 문항들(예: “나는 실패할 것이 뻔한 일이라도 덤벼들어 한다.”)과 자포자기나 자기학대적인 측면에서 실패에 접근하는 피동적 실패지향 문항들(예: “나는 시험에 계속 낙제 점수를 받지만 더 이상 올려보려고 하지 않는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는 .81에서 .83에 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차재호와 안미영, 1990).

(4) 內-外 統制 尺度(차재호, 1973)

이 척도는 모두 21개 문항에 대해 양자선택의 방식으로 대답하게 되어 있다. 통제의 所在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외부 통제의 경향성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5) 抑壓-敏感化 尺度

이 척도는 이명선(1983) 등이 사용한 억압-민감화 척도(총 182문항)에서 127개의 문항(예/아니오 반응)을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위협 자극에 대해 회피하거나 접근하는 방어 양상을 측정하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억압

(회피)을, 높을수록 민감화(접근)를 주요 방어 양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92로 보고되었고, 半分信賴度는 .83으로 보고되었다(이명선, 1983).

(6) 衝動 統制 檢査

이 검사는 性格診斷 檢査(이상로, 변창진, 및 진위교, 1987)중 충동성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만을 추출한 것이다. 모두 35문항으로 예/아니오의 방식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는 고등학교 규준에 따라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이 검사의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통제를 많이 한다고 하겠다. 이 척도의 半分信賴도와 檢査-再檢査 信賴度는 각각 .87, .78로 보고되었다(이상로 등, 1987).

다. 狀況要因

(1) 스트레스 척도

이 검사는 모두 60문항에 대해 5점 척도상에 대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영역에 따라 다음 12개의 하위 척도로 나뉘어 있다.

가) ‘공부’영역

8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성적이 나빠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등의 공부영역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한다.

나) ‘대인 관계’영역

7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주변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등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한다.

다) ‘가정 영역’

12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부모님이나 가족의 편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등 가정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한다.

라) ‘학교생활’ 영역

5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 “교사의 구타나 무리한 처벌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등 학교 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한다.

마) ‘이성관계’ 영역

7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이성친구가 배신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등 이성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한다.

바) ‘취미 및 오락’ 영역

1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등 취미 및 오락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한다.

사) ‘신체적인 건강과 용모’ 영역

2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얼굴이나 체격이 남보다 못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등 신체적인 건강과 용모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한다.

아) ‘심리-성격’ 영역

2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개성이 없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등의 심리-성격적인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한다.

자) ‘가치관’ 영역

6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의 가치관에 관한 스트레스를 측정한다.

차) ‘진로’ 영역

4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취직에 대한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등의 진로 문제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한다.

카) ‘가정 경제’ 영역

3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집안 경제 형편이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는

다”등 가정경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측정한다.

타) ‘종교’ 영역

2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종교생활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등 종교 영역에 대한 스트레스를 측정한다.

(2) 對處 方式 尺度

이 척도는 대처방식 체크 리스트(김정희와 이장호, 1985)의 총 62개 문항 중 전체점수와 상관이 비교적 높은 37개 문항(4점 척도)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다음 네 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된다.

가) ‘문제 집중적 대처’

“그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것을 자세히 분석해 본다” 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대처를 하는 것으로, 13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나) ‘정서 완화적 대처’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군다.” 등의 기분을 바꾸어 주거나 가라앉혀 주는 등의 대처를 하는 것으로 11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다) ‘소망적 사고’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은 경우를 상상하거나 공상한다.” 등의 소망적인 공상을 함으로써 문제를 회피하는 대처를 측정한다. 7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라) ‘사회적 지지 추구’

“그 일에 대해 좀 더 알아 보려고 누군가와 이야기한다.” 등의 문제해결을 도와 주고 지지해줄 사람을 찾는 방식의 대처를 측정한다. 6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3) 面 接

‘중학 성적’을 상/중/하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3. 資料의 分析

가. 一般집단과 犯罪집단과의 比較分析

각종 검사와 질문지에서 얻어진 점수상에서 犯罪 집단과 一般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한편 面接을 통해서 조사된 범주 변인들 중 이분적인 변인(dichotomous variable)들에 대해서는 χ^2 검증을 통해 이들 이분 변인들이 犯罪여부(犯罪 혹은 一般 집단)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범주적인 변인들 중 범주가 3개 이상인 변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범주에서 犯罪 집단과 一般 집단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선형적 로그함수 기법(Log-linear modeling)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나. 犯罪집단과 一般집단을 判別해주는 요인들

범죄여부를 예언해주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해 一般집단과 犯罪집단의 비교 분석에서 차이가 난 변인들을 대상으로 判別函數分析(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을 하였다. 우선 兒童初期의 社會文化的 要因, 個人 性格 要因, 狀況 要因의 3요인 각각에 대해 判別函數分析을 하였다. 그리고 전체 요인에 대해 判別函數分析을 하여 3요인 각각의 판별력과 3요인을 합한 전체 요인의 판별력을 비교하였다.

다. 犯罪집단의 유형별·학력별 비교분석

범죄집단이 하위 유형(強力犯과 其他犯)이나 학력(高校 中退와 中學 中退)에 따라 어떤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犯罪집단을 하위 유형과 학력별로 나누어 검사, 설문지, 面接의 결과에 대해 각각 알맞게 t검증, χ^2 검증, 선형적 로그함수분석을 하였다.

第 3 章 結 果

第3章 結 果

〈결과 1〉 一般집단과 犯罪집단과의 비교분석

1. 兒童初期의 社會文化的 要因

가. 부모의 양육태도

먼저 父의 양육태도에 있어서(〈표 3〉참조) ‘적대감’ 하위척도에서는 犯罪 집단이 一般 집단보다 더 높았으며, ‘합리적인 지도’ 하위척도에서는 一般 집단이 犯罪집단에 비해 더 높았다. 그리고 나머지 양육태도의 하위척도들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母의 양육태도에 있어서(〈표 4〉참조) ‘적대감’ 하위척도에서는 犯罪 집단이 一般 집단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통제’, ‘일관성 있는 규제’, ‘성취’의 하위척도에서는 犯罪 집단이 一般 집단 보다 점수가 더 낮았다. 그 밖의 양육태도들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종합컨대 犯罪 청소년들은 一般 고교생들에 비해 우선 父로부터는 더 적대적인 태도로 양육되었으며, 합리적인 지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母로부터도 더 적대적인 태도로 양육되었으며, 통제적이고 간섭하는 태도, 일관성있는 규제, 성취를 격려하는 관심 및 배려는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표 3〉 두 집단간 父양육태도의 비교

		일반집단	범죄집단	t 값
애 정	평 균	28.88	27.77	t(226) = 1.18
	표 준 편 차	6.58	7.26	
적 대 감	평 균	12.21	14.56	t(226) = -3.78**
	표 준 편 차	4.31	4.87	
통 제	평 균	16.58	16.83	t(226) = -.52
	표 준 편 차	3.67	3.61	
과 보 호	평 균	11.80	11.86	t(226) = -.16
	표 준 편 차	2.59	2.89	
일 관성 있는 규제	평 균	9.07	8.73	t(226) = 1.05
	표 준 편 차	2.29	2.59	
적 극 적 인 참 여	평 균	10.62	10.66	t(226) = -.10
	표 준 편 차	3.26	3.57	
합 리 적 인 지 도	평 균	28.72	26.79	t(226) = 2.37*
	표 준 편 차	6.06	6.12	
성 취	평 균	13.29	12.61	t(226) = 1.81
	표 준 편 차	2.92	2.70	

一般 집단의 n=99, 犯罪 집단의 n=131

* $p < .05$, ** $p < .01$

나. 面接結果

(1) 어린 시절의 주양육자

어린 시절의 주양육자가 부모인가의 여부는 犯罪여부와 관련 되어 있지 않았다($\chi^2(1, N=237)=2.89$, $p=.089$). 즉 一般 집단과 犯罪 집단 모두에서 부모(양친, 父·母의 경우를 포함)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가 기타 가족에 의해 양육

〈표 4〉 두 집단간 모양육태도의 비교

		일반집단	범죄집단	t 값
애정	평균	31.37	30.81	t(232) = .58
	표준편차	7.63	7.29	
	피험자수	99	135	
적대감	평균	12.51	14.02	t(233) = -2.52*
	표준편차	4.42	4.65	
	피험자수	99	136	
통제	평균	17.76	16.36	t(233) = 3.19**
	표준편차	3.07	3.48	
	피험자수	99	136	
과보호	평균	12.40	12.22	t(232) = .47
	표준편차	2.96	2.77	
	피험자수	98	136	
일관성있는 규제	평균	9.01	8.31	t(234) = 2.20*
	표준편차	2.20	2.54	
	피험자수	99	137	
적극적인 참여	평균	11.02	11.56	t(234) = -1.18
	표준편차	3.28	3.62	
	피험자수	99	137	
합리적인 지도	평균	28.45	27.12	t(231) = 1.74
	표준편차	5.70	5.85	
	피험자수	99	136	
성취	평균	14.00	13.09	t(233) = 2.36*
	표준편차	3.10	2.80	
	피험자수	99	136	

주) * $p < .05$, ** $p < .01$

되는 경우보다 많았다<표 5 참조>.

(2) 국교전 부모와 동거여부 및 현재 부모와 동거여부

犯罪여부와 국민학교전 부모와 동거여부는 서로 관련되어 있었다($\chi^2(1, N=240)=19.93, p=.00$). 국교전 父나 母와 별거한 경험에 있는 경우는 犯罪 집단이 一般 집단보다 더 많았다<표 6 참조>.

현재 부모와의 동거여부도 犯罪 여부와 유의미한 관련을 보였는데($\chi^2(1, N=240)=35.19, p=.00$), 현재 부모와 별거하는 경우는 犯罪 집단이 一般 집단보다 많았다<표 6 참조>. (그리고 별거의 경우를 세분한 자료는 부록의 표 1 참조).

<표 5> 어린 시절의 주 양육자

	일 반 집 단		범 죄 집 단	
	명	집단내 %	명	집단내 %
父 나 母	92	92.0%	116	84.7%
기 타 가 족	8	8.0%	21	15.3%
계	100	100.0%	137	100.0%

<표 6> 부모와 동거여부

		일 반 집 단		범 죄 집 단	
		명	집단내 %	명	집단내 %
국 교 전	양 친 동 거	100	100.0%	115	82.1%
	부, 모, 양친 별거	0	.0%	25	17.9%
	계	100	100.0%	140	100.0%
현 재	양 친 동 거	94	94.0%	84	60.0%
	부, 모, 양친 별거	6	6.0%	56	40.0%
	계	100	100.0%	140	100.0%

(3) 父 및 母의 사망 여부

父의 사망여부는 犯罪여부와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다($\chi^2(1, N=240)=5.97, p=.015$). 즉 父가 사망한 경우는 犯罪 집단이 一般 집단보다 더 많았다. 또한 母의 사망여부도 犯罪여부와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는데($\chi^2(1, N=239)=9.09, p=.003$). 母가 사망한 경우가 犯罪 집단에서 더 많았다(표 7 참조).

〈표 7〉 父 및 母의 사망여부

			일반집단		범죄 집단	
			명	집단내 %	명	집단내 %
부	생	존	94	94.0%	117	83.6%
	사	망	6	6.0%	23	16.4%
	계		100	100.0%	140	100.0%
모	생	존	100	100.0%	127	91.4%
	사	망	0	.0%	12	8.6%
	계		100	100.0%	139	100.0%

(4) 父 및 母의 문제 여부

父가 적응상의 문제를 갖는지의 여부와 犯罪여부는 서로 관련되어 있었다. ($\chi^2(1, N=240)=21.49, p=.00$). 즉 문제있는 父를 갖는 경우가 犯罪 집단에서 더 많았다. 그러나 母의 문제여부는 犯罪여부와 유의미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chi^2(1, N=240)=.76, p=.38$). 즉 문제母를 갖는 경우는 犯罪 집단과 일반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표 8 참조). (父 및 母의 구체적인 문제는 부록의 표 2참조).

(5) 부모의 이혼여부

부모의 이혼여부와 犯罪여부는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다($\chi^2(1, N=239)=35.76, p=.00$).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一般 집단에서보다 犯罪 집단에서 더 많

았다(〈표 9〉참조. 이혼 별거, 재결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부록의 〈표 3〉참조).

〈표 8〉 父 및 母의 문제여부

		일 반 집 단		범 죄 집 단	
		명	집단내 %	명	집단내 %
부	문 제 없 음	90	90.0%	89	63.6%
	문 제 있 음	10	10.0%	51	36.4%
	계	100	100.0%	140	100.0%
모	문 제 없 음	92	92.0%	124	88.6%
	문 제 있 음	8	8.0%	16	11.4%
	계	100	100.0%	140	100.0%

〈표 9〉 부모의 이혼여부

		일 반 집 단		범 죄 집 단	
		명	집단내 %	명	집단내 %
이혼경험없음		99	99.0%	95	68.3%
이혼, 별거 및 재결합		1	1.0%	44	31.7%
계		100	100.0%	139	100.0%

(6) 친부모여부

친부모여부와 犯罪여부는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犯罪 집단이 一般 집단보다 친부모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았다($\chi^2(1, N=240)=40.18, p=.00$) (〈표 10〉참조). (친부모가 아닌 경우를 세분한 자료는 부록의 〈표 4〉참조).

(7) 칭찬 및 처벌의 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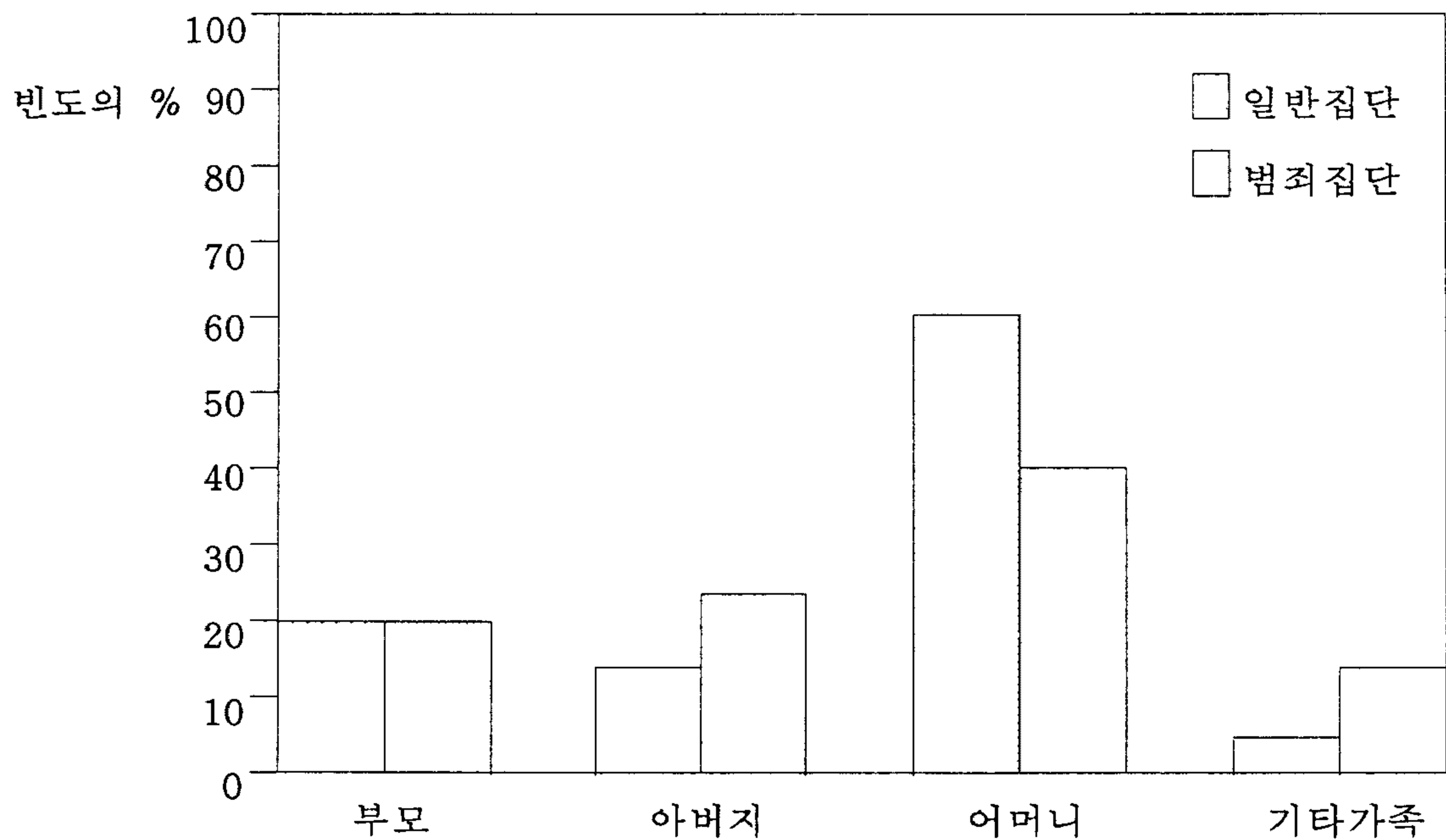
칭찬을 주로 누가 해주었느냐 하는 것과 犯罪여부는 유의미한 관련을 보였다($\chi^2(3, N=162)=7.741, p=.059$). 선형적 로그함수 기법(log-linear model

ing)을 사용하여 어떤 범주에서 一般 집단과 犯罪 집단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표 10〉 친부모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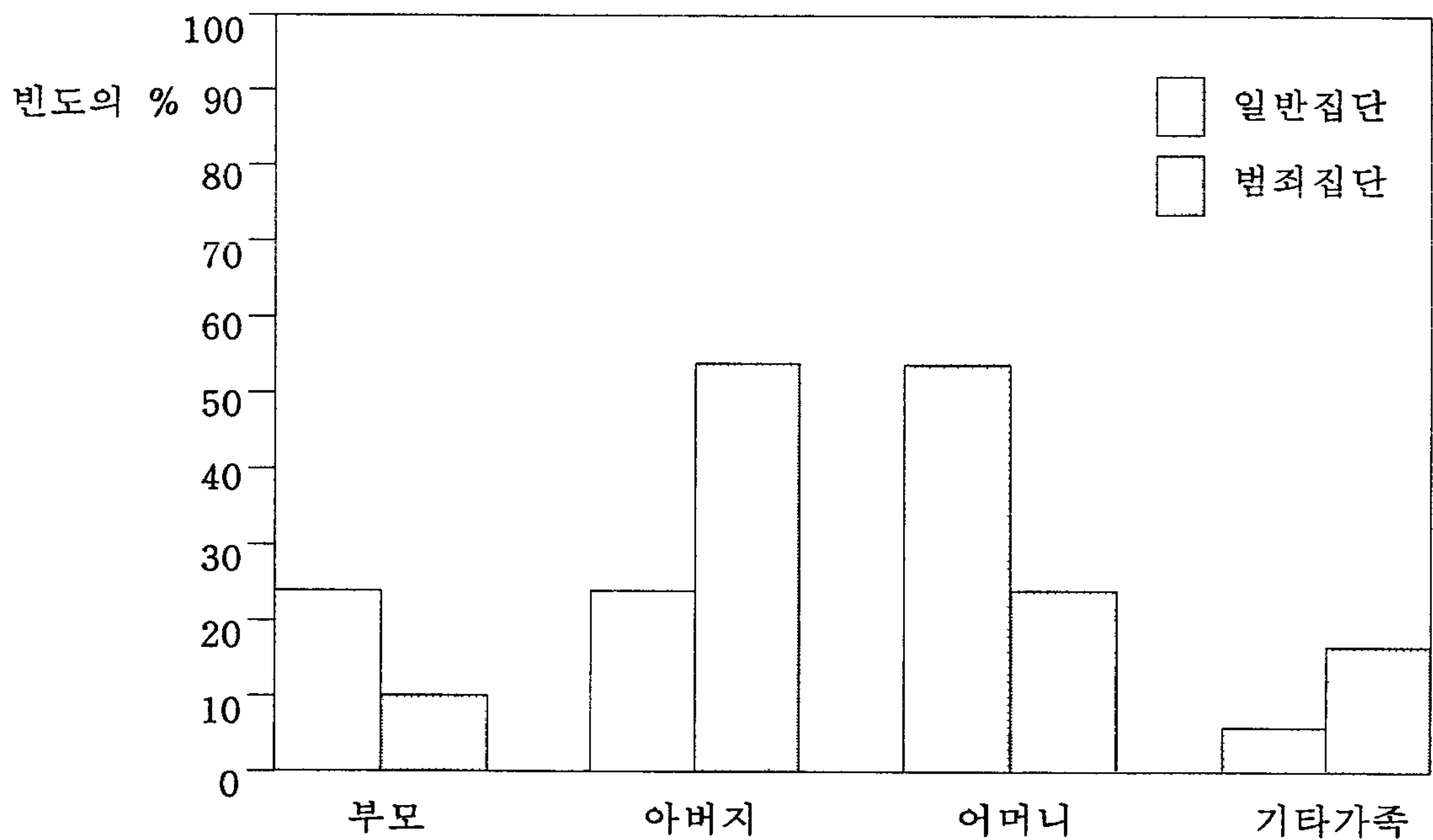
	일반집단		범죄집단	
	명	집단내 %	명	집단내 %
친부모	98	98.0%	89	63.6%
친부모가 아닌 경우	2	2.0%	51	36.4%
계	100	100.0%	140	100.0%

분석했는데(〈표 11〉참조), 母로 부터 칭찬을 받는 경우는 一般 집단이 犯罪 집단보다 더 많았고, 반면 기타 가족(형제나 조부모)으로 부터 칭찬을 받는 경우는 犯罪 집단이 一般 집단보다 더 많았다(〈그림 1〉 참조).



〈그림 1〉 칭찬의 원천

한편 처벌을 주로 누가 했느냐하는 것도 犯罪여부와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다($\chi^2(3, N=212)=32.09, p=.00$). 선형적 로그함수 기법을 사용하여 어떤 범주에서 一般집단과 犯罪집단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했는데(〈표 11〉참조), 양친 모두로부터 처벌을 받는 경우는 犯罪 집단이 一般 집단보다 더 적었고, 주로 母로부터 처벌을 받는 경우도 犯罪 집단이 더 적었다. 그러나 부모를 제외한 기타 가족으로부터 처벌을 받는 경우는 犯罪 집단이 一般 집단보다 더 많았다. 그리고 처벌을 주로 父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두 집단이 다르지 않았다(〈그림 1〉참조, 칭찬 및 처벌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부록의 〈표 5〉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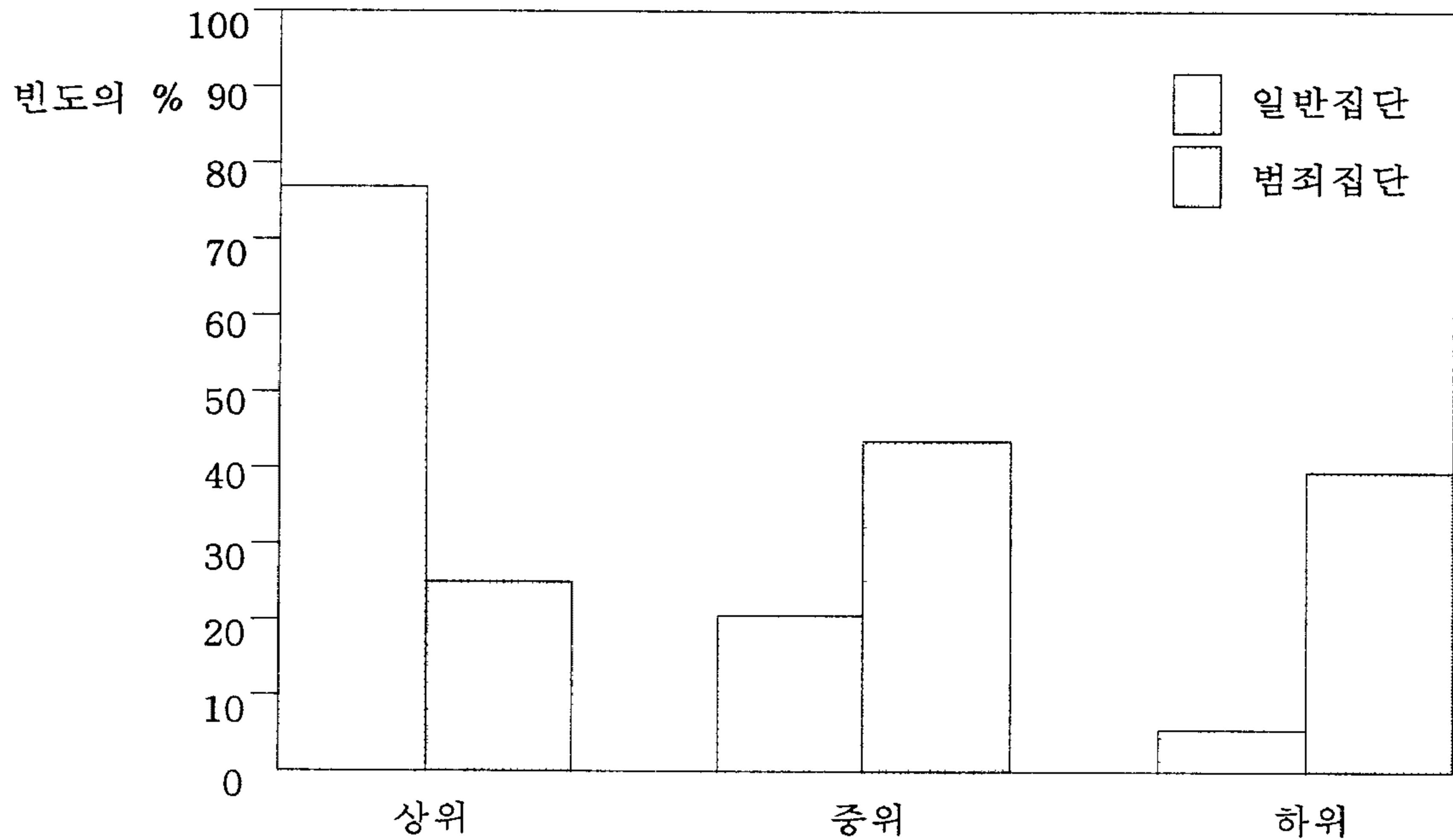


〈그림 2〉 칭찬의 원천

(8) 국민학교 성적

국민학교 성적과 犯罪여부는 서로 관련되어 있었다($\chi^2(2, N=238)=6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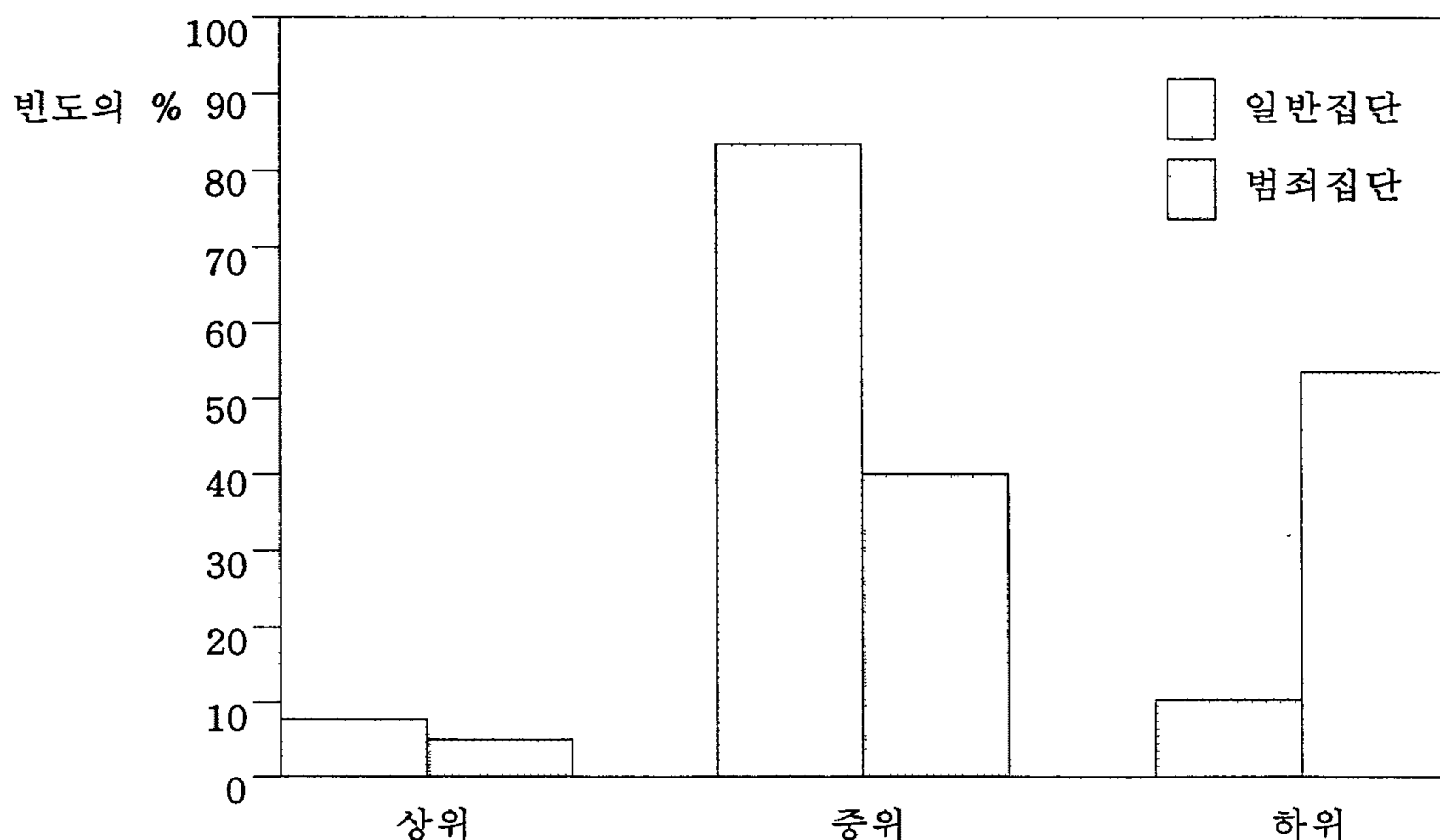
$p=00$). 선형적 로그함수 기법을 사용하여 어떤 범주에서 一般 집단과 犯罪 집단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했는데(〈표 11〉참조), 상위 성적인 경우는 犯罪 집단이 一般 집단보다 더 적었고, 하위 성적인 경우는 犯罪 집단이 一般 집단보다 더 많았다(〈그림 3〉 참조. 표자료는 부록의 〈표 6〉 참조).



〈그림 3〉 국민학교 성적

(9) 사회경제적인 지위(SES)

SES는 犯罪여부와 관련되어 있었다($\chi^2(2, N=239)=51.77, p=.00$). 선형적 로그함수 기법을 사용하여 어떤 범주에서 一般 집단과 犯罪 집단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했는데(〈표 11〉참조), 중간 SES에 속하는 경우는 犯罪 집단이 一般 집단보다 그 수가 더 적었고, 하위 SES에 속하는 경우는 犯罪 집단이 一般 집단보다 더 많았다(〈그림 4〉 참조. 표자료는 부록의 〈표 7〉 참조).



〈그림 4〉 사회경제적 지위(SES)

(10) 출생순위 및 형제의 수

출생순위는 범행여부와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다($\chi^2(6, N=239)=16.39$, $p=.01$). 선형적 로그함수 기법을 사용하여 어떤 범주에서 一般 집단과 범행 집단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했는데(〈표 12〉 참조),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는 범행 집단이 一般 집단보다 그 수가 더 적었으나, 나머지 출생순위들에서는 집단간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한편 자신을 포함한 형제의 수에 있어서는 범행 집단(평균 3.28명, 표준편차 1.30)이 일반 집단(평균 2.94명, 표준편차 1.22)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많았다($t(237)=-2.04$, $p=.04$).

〈표 11〉 각 선형적 로그함수 기법에서 모수치 추정

모 수 치		계 수	Z 값
집단×칭찬의 원천	범죄집단/양친	.1245	.8012
	범죄집단/부	-.0510	-.3129
	범죄집단/모	.2985	2.4002*
	범죄집단/기타가족	-.3720	-1.7398
집단×처벌의 원천	범죄집단/양친	.5536	3.2367*
	범죄집단/부	-.1460	-.9754
	범죄집단/모	.5181	3.5197*
	범죄집단/기타가족	-.9257	-2.8628*
집단×국교성적	범죄집단/상위	.8120	7.5081*
	범죄집단/중위	-.1676	-1.4167
	범죄집단/하위	-.6444	-4.2986*
집단×SES	범죄집단/상위	.3250	1.8170
	범죄집단/중위	.4489	3.8602*
	범죄집단/하위	-.7739	-5.3467*
집단×출생순위	범죄집단/첫째	.3965	2.8037*
	범죄집단/둘째	.1166	.7812
	범죄집단/셋째	-.3192	-1.8038
	범죄집단/넷째	-.2264	-.9597
	범죄집단/다섯째	.0653	.3041
	범죄집단/여섯째	.1325	.4158
	범죄집단/일곱째이상	-.1653	-.3888

* $p < .05$

〈표 12〉 출생순위 .

		일반집단		범죄집단	
		명	집단내 %	명	집단내 %
첫 둘 셋 넷 다 여 일	째	45	45.0%	34	24.5%
	째	27	27.0%	36	25.9%
	째	11	11.0%	36	25.9%
	째	5	5.0%	14	10.1%
	째	8	8.0%	12	8.6%
	째	3	3.0%	4	2.9%
	째	1	1.0%	3	2.2%
곱	계	100	100.0%	139	100.0%

2. 個人性格 要因

가. 自我概念檢査

자아개념 검사의 10개 하위 척도에 있어서 犯罪 집단과 一般 집단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13〉에 나타나 있다. 犯罪 집단은 一般 집단에 비해 ‘自我 수용’, ‘도덕 자아’, ‘가정 자아’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더 낮았고, 반면 ‘신체 자아’의 점수는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그밖의 자아상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에

〈표 13〉 두 집단의 自我概念 檢査의 비교

		일반집단	범죄집단	t값
자 아 평 가 점 수	평 표 준 편 차	64.10 25.57	63.54 27.12	t(238) = .16
총 자 아 긍정 점 수	평 표 준 편 차	48.37 28.25	42.89 25.81	t(238) = 1.56
자 아 정 체 성 점 수	평 표 준 편 차	50.24 29.63	54.96 24.91	t(238) = -1.34
자 아 수 용 점 수	평 표 준 편 차	49.10 27.36	35.52 24.07	t(238) = 4.07**
자 아 행 동 점 수	평 표 준 편 차	48.00 25.40	41.31 27.63	t(238) = 1.91
신 체 자 아 점 수	평 표 준 편 차	49.32 29.48	60.07 26.16	t(238) = -2.98**
도 덕 자 아 점 수	평 표 준 편 차	42.25 25.16	29.49 22.74	t(238) = 4.10**
성 격 자 아 점 수	평 표 준 편 차	50.74 25.24	44.98 26.10	t(238) = 1.17
가 정 자 아 점 수	평 표 준 편 차	49.52 25.76	39.00 25.10	t(238) = 3.17**
사 회 적 자 아 점 수	평 표 준 편 차	53.20 26.73	50.86 27.38	t(238) = .66

주) * < .05, ** p < .01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犯罪 집단은 일반 집단에 비해 자기 만족과 수용의 정도가 낮고, 도덕적인 준거의 체계가 낮으며, 가정에 대한 만족의 정도가 낮다. 그러나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는 犯罪 집단이 一般 집단보다 더 긍정적이다.

나. 性格次元檢査

性格次元檢査의 네가지 하위 척도들에서는 오직 ‘강인성’ 척도에서만 犯罪 집단이 一般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나머지 세 하위 척도들에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표 14〉 참조). 즉 범행 집단이 一般 집단에 비해 공격적이고 냉담하며 동정심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14〉 두 집단의 性格次元檢査의 비교

		일반집단	범죄집단	t값
강 인 성 척 도	평 균	58.49	78.34	t(238) = -6.36**
	표 준 편 차	26.15	22.05	
외 향 성 척 도	평 균	57.62	56.11	t(238) = .41
	표 준 편 차	29.81	26.75	
정 서 성 척 도	평 균	54.42	56.26	t(238) = -.49
	표 준 편 차	28.81	29.04	
허 위 척 도	평 균	30.62	31.92	t(238) = -.44
	표 준 편 차	21.22	23.33	

주) *p<.05, **<.01

다. 其他性格 尺度들

기타의 성격 척도들에서 犯罪 집단은 一般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실패 추구

동기점수와 더 낮은 충동 통제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내-외 통제 척도와 억압-민감화 척도상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표 15>참조). 따라서 犯罪 집단은 一般 고등학생에 비해 실패를 추구하는 동기는 더 높고,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은 더 떨어진다고 하겠다.

〈표 15〉 두 집단의 其他 性格檢査의 비교

		일반집단	범죄집단	t값
실패 접근 척도	평	30.45	41.49	t(238) = -5.24**
	표준편차	17.00	15.41	
내-외 통제 척도	평	5.86	6.31	t(238) = -1.64
	표준편차	2.04	2.17	
억압-민감화 척도	평	59.68	63.04	t(238) = -1.71
	표준편차	15.03	14.90	
충동 통제 척도	평	61.07	53.22	t(238) = 2.25*
	표준편차	26.22	26.85	

주) *p<.05, **p<.01

3. 狀況要因

가. 스트레스 정도

생활 전반에 걸쳐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犯罪 집단이 一般 집단에 비해 훨씬 더 많았다. 각 생활 영역들을 세분하여 보면 犯罪 집단은 一般 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가정’, ‘이성관계’, ‘신체적인 건강과 용모’, ‘가치관’, ‘가정 경제’영역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표 16> 참조).

〈표 16〉 두 집단간 스트레스 정도의 비교

		일반집단	범죄집단	t값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	평균 표준편차 수	69.66 26.97 80	94.71 30.54 128	t(206) = -6.01**
공부	평균 표준편차 수	17.95 4.97 94	17.90 5.17 139	t(231) = .07
대인관계	평균 표준편차 수	4.89 3.89 94	10.13 5.02 135	t(227) = -8.47**
가정	평균 표준편차 수	11.77 7.68 95	19.43 8.69 137	t(230) = -6.92**
학교	평균 표준편차 수	6.32 4.27 100	7.25 3.76 140	t(238) = -1.79
이성관계	평균 표준편차 수	5.20 4.28 99	9.26 5.83 137	t(234) = -5.87**
취미	평균 표준편차 수	2.12 1.14 97	2.33 1.21 140	t(235) = -1.31
신체	평균 표준편차 수	1.52 1.27 95	2.40 1.73 139	t(232) = -4.27**
성격	평균 표준편차 수	2.24 1.85 96	2.62 1.69 140	t(234) = -1.64
가치관	평균 표준편차 수	8.20 4.71 96	9.38 4.16 139	t(232) = -2.03*
진로	평균 표준편차 수	6.67 3.89 94	7.50 3.64 139	t(231) = -1.65
경제	평균 표준편차 수	2.43 2.41 99	4.99 2.71 140	t(237) = -7.50**
종교	평균 표준편차 수	1.35 1.58 100	1.40 1.32 139	t(237) = -.28

주) *p<.05, **p<.01

나. 스트레스에 對處

스트레스에 對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犯罪 집단이 一般 집단에 비해 ‘정서완화적 對處’와 ‘사회적 지지 추구’를 더 많이 사용한다. 한편 ‘문제집중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에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17〉 참조).

〈표 17〉 두 집단간 對處방식의 비교.

		일반집단	범죄집단	t값
문제집중적 對處	평균 표준편차	18.65 6.71	19.84 7.46	$t(238) = -1.27$
정서완화적 對處	평균 표준편차	11.24 5.31	14.16 4.95	$t(238) = -4.36^{**}$
소망적 사고	평균 표준편차	11.44 4.79	11.56 4.21	$t(238) = -.20$
사회적 지지 추구	평균 표준편차	5.33 3.87	7.84 3.88	$t(238) = -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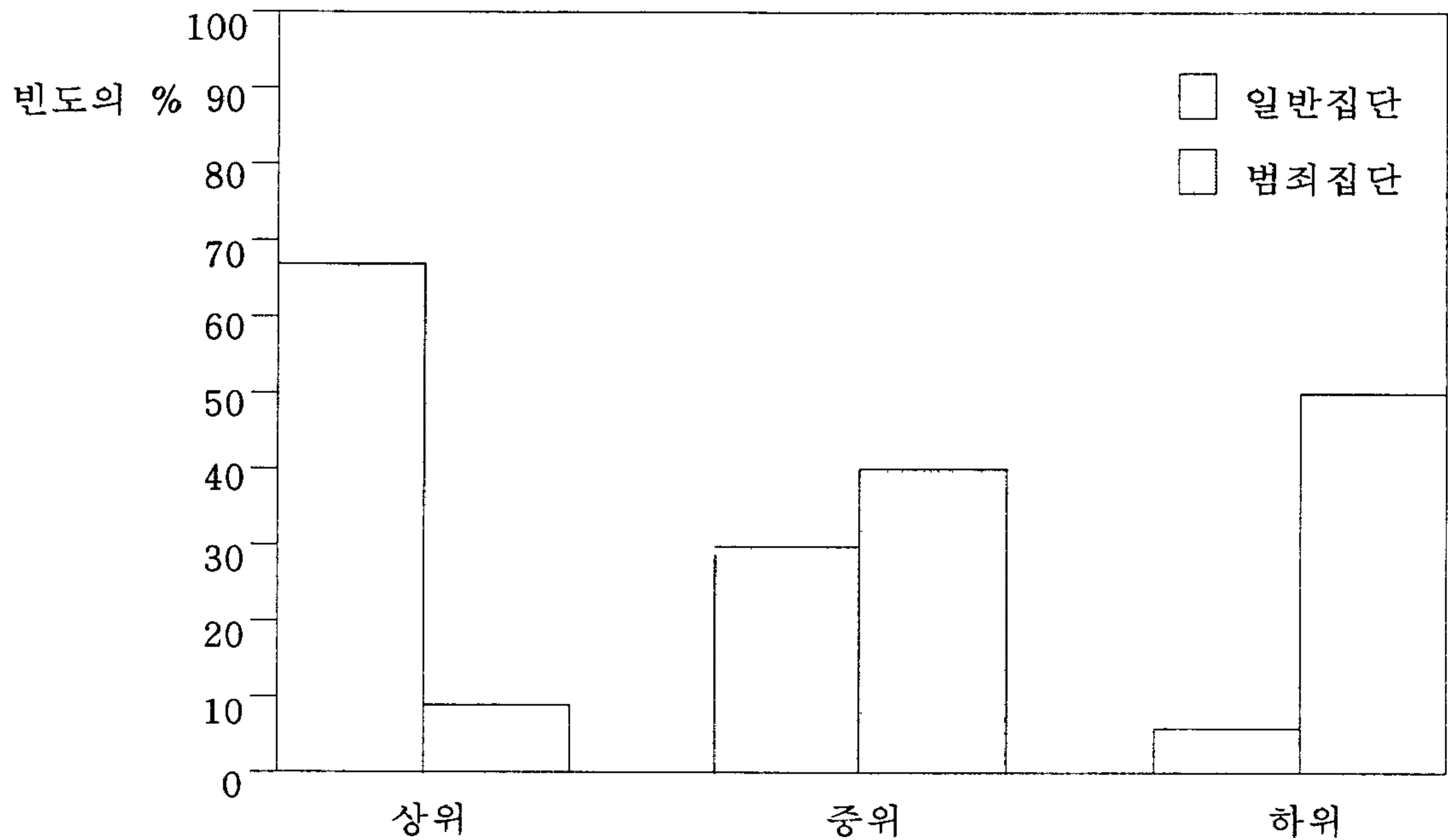
주) * $p < .05$, ** $p < .01$

다. 中學 成績

중학교 성적도 국교성적과 마찬가지로 상위 성적은 범행 집단이 一般 집단보다 더 적었고, 하위 성적인 경우는 범행 집단이 一般 집단보다 더 많았다 ($\chi^2(2, N=233) = 98.14, p = .00$)(〈그림 5〉 참조. 〈표 18〉 참조. 자세한 자료는 부록의 〈표 8〉 참조).

〈표 18〉 각 선형적 로그함수 기법에서 모수치 추정

모 수 치		계 수	Z값
집단 × 중학성적	범죄집단/상위	1.0867	8.2173*
	범죄집단/중위	-.0619	-.5216
	범죄집단/하위	-1.0248	-.7091



〈그림 5〉 중학교 성적

〈결과 2〉 犯罪 집단과 一般 집단을 判別해 주는 要因들

1. 兒童初期의 社會文化的인 要因

兒童初期의 社會文化的 要因의 20개 變因중 犯罪 집단과 一般 집단이 차이를 드러낸 17개 變因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判別函數分析을 하였다. 이 17개 변인에는 父의 양육행동 척도 중 ‘적대감’, ‘합리적인 지도’의 2개 하위척도, 母의 양육행동 척도 중 ‘적대감’, ‘통제’, ‘일관성 있는 규제’, ‘성취’의 4개 하위척도, 그리고 面接을 통해 조사된 변인들 중 ‘국교 전 부모의 동거여부’, ‘현재 부모와의 동거여부’, ‘父 및 母의 사망여부’, ‘父의 문제여부’, ‘부모와의 이혼여부’

부', '친부모여부', '국교 성적', '사회경제적 지위', '출생 순위', '형제 수', '칭찬 및 처벌의 원천'의 10개 하위척도들이 있다.

분석을 통해 얻어진 判別函數상의 평균(group centroid)은 一般집단이 -1.16이고, 犯罪집단은 .88으로서 두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Wilks' λ = .49, $\chi^2(10, N=222)=152.48, p=.00$). 判別函數의 효율성을 나타내주는 지표인 固有值(Eigenvalue)는 1.03으로서 높게 나왔다. 그리고 判別점수와 집단 변인(犯罪/一般 집단)간의 상관인 定準(Canonical)상관계수는 .71이었다.

判別變因을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判別函數상에서 가장 작은 값의 Wilks' λ 를 갖는 변인을 判別函數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 결과, 判別變因으로는 <표 19>에서 보는 것처럼 10개의 변인이 얻어졌다. 이 변인에는 모의 양육 행동 척도 중 '통제', '성취'하위 척도가 있고, 面接 자료 중 '국교성적', '부모의 이혼 여부', '출생순위', '사회경제적인 지위', '국교전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의 문제 여부', '모의 사망여부', 부의 양육 척도 중 '적대감'하위척도가 있다. 실제의 一般 및 犯罪집단 240명을 이러한 10개 변인의 기준에 맞추어

<표 19> 判別變因과 定準判別函數計數(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판 별 변 인	표준화된 판별계수	판별변인과 판별함수간의 상관
모의 통제적인 양육	-.3389	-.2221
모의 성취격려적인 양육	-.1277	-.1826
국민학교 성적	.6535	.6137
부모의 이혼여부	.3395	.4112
출생순위	.3249	.1620
사회경제적인 지위	.2710	.4501
국교전 부모와 동거여부	.2424	.2811
부의 문제여부	.1901	.2977
모의 사망여부	.1427	.1795
부의 적대적인 양육	.1414	.2519

一般 犯罪집단과 犯罪집단으로 재분류했을 때 〈표 20〉에서 보는 것처럼 一般 집단은 89%가 정확히 분류됐고, 犯罪집단은 80.7%가 정확히 분류되어서, 평균 84.17%의 判別力을 보였다.

〈표 20〉 判別결과

실 제 집 단	사 례 수	예 언 된 집 단	
		일 반 집 단	범 죄 집 단
일 반 집 단	100	89(89%)	11(11%)
범 죄 집 단	140	27(19.3%)	113(80.7%)

2. 個人性格 要因

성격 요인에 관련된 18개 변인 중 犯罪집단과 一般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7개의 변인을 선택하여 判別函數 分析을 하였다. 즉 自我概念검사 중 ‘自我수용’, ‘신체자아’, ‘도덕자아’, ‘가정자아’의 4하위척도, 性格次元 檢査 중 ‘강인성’의 1하위척도, 그외에 실패 접근 척도, 충동 통제 척도의 총 7개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判別函數 分析을 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어진 判別函數상의 평균(group centroid)은 一般집단이 $-.78$ 이고, 犯罪집단은 $.56$ 으로서 두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Wilks' $\lambda = .69$, $\chi^2(5, N=240) = 85.86$, $p = .00$). 判別函數의 효율성을 나타내주는 지표인 고유치(Eigenvalue)는 $.44$ 로서 높게 나왔다. 그리고 判別점수와 집단 변인(犯罪/一般 집단)간의 상관인 定準(Canonical)상관계수는 $.55$ 이었다.

〈표 21〉 判別變因과 定準判別函數計數(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판 별 변 인				표준화된 판별계수	판별변인과 판별함수간의 상관
자	아	수	용	-.6081	-.3975
도	덕	자	아	-.2004	-.4005
신	체	자	아	.8279	.2908
실	패	접	근	.4198	.5123
강		인	성	.3733	.5947

判別變因을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判別函數상에서 가장 작은 값의 Wilks' λ 를 갖는 변인을 判別函數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 결과, 判別變因으로는 표 21에서 보는 것처럼 '自我수용', '도덕자아', '신체자아', '실패접근', '강인성'의 5개 변인이 얻어졌다. 이러한 5개의 변인들이 실제의 一般 및 犯罪집단을 얼마나 判別해 내는가를 보았더니, 〈표 22〉에서 보는 것처럼 一般집단은 74%가 判別되었고, 犯罪집단은 75%가 判別되어서, 평균 74.58%의 判別력을 보였다.

〈표 22〉 判別결과

실 제 집 단	사 례 수	예 언 된 집 단	
		일 반 집 단	범 죄 집 단
일 반 집 단	100	74(74%)	26(26%)
범 죄 집 단	140	35(25%)	105(75%)

3. 狀況要因

狀況 要因에 關連된 檢査 및 面接자료 중 一般 집단과 犯罪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9개의 검사를 선택하여 判別函數 分析을 하였다. 즉, 스트레스 척도 중 ‘대인관계’, ‘가정’, ‘이성관계’, ‘신체적인 건강과 용모’, ‘가치관’, ‘가정경제’의 6개의 하위척도와 對處방식 척도 중 ‘정서완화적 對處’, ‘사회적 지지 추구’의 2개의 하위척도, 그리고 面接자료 중 ‘중학성적’의 전체 9개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判別函數 分析을 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어진 判別函數상의 평균(group centroid)은 一般집단이 -1.36이고, 犯罪집단은 .94으로서 두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Wilks' $\lambda = .44$, $\chi^2(6, N=208) = 168.00$, $p = .00$). 判別函數의 효율성을 나타내주는 지표인 고유치(Eigenvalue)는 1.29로서 높게 나왔다. 그리고 判別점수와 집단 변인(犯罪/一般집단)간의 상관인 定準(Canonical)상관계수는 .75이었다.

判別變因을 抽出하는 방법으로는 判別函數상에서 가장 작은 값의 Wilks' λ 를 갖는 변인을 判別函數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 결과, 判別變因으로는 표 23에서 보는 것처럼 6개의 변인이 얻어졌는데, 이에는 ‘가치관 스트레스’, ‘중학 성적’, ‘대인관계 스트레스’, ‘가정경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추구 對處’, ‘정서완화적인 對處’가 있다.

〈표 23〉 判別變因과 定準判別函數計數(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판 별 변 인	표준화된 판별계수	판별변인과 판별함수간의 상관
가치관 스트레스	-.2314	.1064
중학 성적	.7696	.7085
대인관계 스트레스	.3739	.4978
경제적 스트레스	.3645	.4479
사회적 지지 추구	.2742	.2731
정서완화적인 대처	.1948	.2823

이러한 6개의 변인들이 실제의 一般집단과 犯罪집단을 얼마나 判別해 내는

가를 알아 보았더니, 표 24에서 보는 것처럼 一般집단은 84%가 정확히 분류됐고, 犯罪집단은 87.1%가 정확히 분류되어서, 평균 85.83%의 判別力을 보였다.

〈표 24〉 判別결과

실 제 집 단	사 례 수	예 언 된 집 단	
		일 반 집 단	범 죄 집 단
일 반 집 단	100	84(84%)	16(16%)
범 죄 집 단	140	18(12.9%)	122(87.1%)

4. 綜合的 分析

兒童初期의 社會文化的 要因, 個人性格要因, 狀況要因의 總計 55개 變인중 犯罪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되어진 40개 요인들 모두를 判別函數分析에 포함시켜 이들 중 어떤 요인이 犯罪집단과 一般집단을 변별해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어진 判別函數상의 평균(group centroid)은 一般집단이 -1.79이고, 犯罪집단은 1.33으로서 두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Wilks' $\lambda = .29$, $\chi^2(20, N=192) = 220.73$, $p = .00$). 判別函數의 효율성을 나타내주는 지표인 고유치(Eigenvalue)는 2.41로서 높게 나왔다. 그리고 判別점수와 집단 변인(犯罪/一般집단)간의 상관인 定準(Canonical)상관계수는 .84이었다.

判別變因을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判別函數상에서 가장 작은 값의 Wilks' λ 를 갖는 변인을 判別函數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 결과, 判別變因으로는 〈표 25〉에서 보는 것처럼 20개의 변인이 얻어졌다.

이러한 변인들을 사용하여 실제의 一般 및 犯罪집단 240명을 一般집단과 犯罪

집단으로 재분류했을 때 〈표 26〉에서 보는 것처럼 一般집단은 95%가 정확히 분류됐고, 犯罪집단은 93.6%가 정확히 분류되어서, 평균 94.17%의 判別力을 보였다.

〈표 25〉 判別變因과 定準判別函數計數(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판 별 변 인	표준화된 판별계수	판별변인과 판별함수간의 상관
형제의 수	-.3859	.0732
모의 통제적인 양육	-.3454	-.1570
도덕 자아	-.3296	-.1946
가치관 스트레스	-.3049	.0865
중학성적	.5057	.5331
출생순위	.4954	.1115
신체 자아	.4314	.1307
대인관계 스트레스	.3369	.3967
경제적인 스트레스	.2418	.3362
사회적인 지지추구	.2000	.1990
국교전 부모와 동거여부	.1989	.1800
신체적인 스트레스	.1864	.1807
가정적 스트레스	.1554	.3157
국민학교 성적	.1512	.3944
가정적 자아	.1426	-.1454
강인성	.1417	.2845
사회경제적인 지위	.1268	.2503
부의 문제여부	.1179	.2187
모의 사망여부	.1144	.1179
실패 접근	.1131	.2772

〈표 26〉 判別결과

실 제 집 단	사 례 수	예 언 된 집 단	
		일 반 집 단	범 죄 집 단
일 반 집 단	100	95(95%)	5(5%)
범 죄 집 단	140	9(6.4%)	131(93.6%)

〈결과 3〉 犯罪 集團內 分析

1. 犯罪類型에 따른 分析

犯罪집단이 범행의 공격성 여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強力犯 집단과 其他犯 집단으로 나누어 본 연구에서 조사한 각종 질문지 및 面接 결과들을 비교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質問紙를 통해서 조사된 변인들 중 ‘강인성’ 척도와 부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성격’스트레스의 3가지 변인에서 其他犯 집단이 強力犯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표 27〉참조).

〈표 27〉 犯罪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척도들의 비교

		강력범집단	기타범집단	t 값
강 인 성	평 균	75.47	84.33	t(136) = -1.96, p = .05
	표준편차	22.43	30.49	
	명	74	64	
부의 과보호적인 양육	평 균	11.37	12.41	t(127) = -2.05, p = .04
	표준편차	2.83	2.94	
	명	68	61	
성격 관련 스트레스	평 균	2.36	2.94	t(136) = -2.00, p = .05
	표준편차	1.45	1.91	
	명	74	64	
내-외통제	평 균	6.00	6.67	t(136) = -1.81, p = .07
	표준편차	2.26	2.06	
	명	74	64	
모의 과보호적인 양육	평 균	11.81	12.61	t(132) = -.78, p = .09
	표준편차	3.08	2.31	
	명	72	62	
가치관 관련 스트레스	평 균	8.81	10.05	t(135) = -1.74, p = .08
	표준편차	4.41	3.84	
	명	73	64	

그리고 내-외 통제척도, 모의 과보호적인 양육, 가치관에 관련된 스트레스의 정도 각각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나 其他犯 집단이 強力犯집단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그밖의 나머지 척도들에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面接을 통해 조사된 변인 중 유일하게 父의 문제여부만이 強力犯/其他犯여부와 유의미한 관련을 보였다. ($\chi^2(1, N=137)=6.74, p=.01$). 즉 父가 문제를 갖는 경우는 其他犯 집단이 強力犯 집단보다 더 많았다(<표 28>참조). 그 밖의 面接 변인들은 強力犯/其他犯 여부와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

<표 28> 犯罪유형과 父의 문제여부

	강 력 범		기 타 범	
	명	집단내 %	명	집단내 %
문 제 없 음	55	74.3 %	34	53.1 %
문 제 있 음	19	25.7 %	30	46.9
계	74	100.0 %	64	100.0 %

2. 學校脫落時機에 따른 分析

犯罪 집단이 학교 탈락 시기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교중퇴 집단과 중학중퇴 집단으로 나누어 여러가지 변인들에 걸쳐 두 집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나 ‘실패 접근 척도’에 있어서 중학중퇴 집단(평균 43.81, 표준편차 14.62)이 고교중퇴 집단(평균 38.51, 표준편차 15.68)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경향성이 관찰되었다($t(117)=-1.82, p=.07$). 그 밖의

다른 척도들에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面接을 통해 조사된 변인들 중에서는 ‘母의 문제여부’와 ‘국민학교 성적’이 고교중퇴/중학중퇴 여부와 관련되어 있었다(<표 29>참조).

<표 29> 학력변인과 관련을 보이는 변인들

		고교중퇴		중학중퇴	
		명	집단내 %	명	집단내 %
국교전 부모와 동거 여부	양친동거	36	92.3%	64	79.0%
	부, 모, 양친 별거	3	7.7%	17	21.0%
	계	39	100.0%	81	100.0%
母의 문제여부	문제없음	38	97.4%	68	84.0%
	문제있음	1	2.6%	13	16.0%
	계	39	100.0%	81	100.0%
국교성적	상위	13	33.3%	12	15.0%
	중위	12	30.8%	38	47.5%
	하위	14	35.9%	30	37.5%
	계	39	100.0%	80	100.0%
사회경제적 지위	상위	1	2.6%	3	3.8%
	중위	21	53.8%	26	32.5%
	하위	17	43.6%	51	63.8%
	계	39	100.0%	80	100.0%
출생순위	첫째	3	7.7%	26	32.5%
	둘째	10	25.6%	19	23.8%
	셋째	12	30.8%	20	25.0%
	넷째	5	12.8%	9	11.3%
	다섯째	5	12.8%	3	3.8%
	여섯째	2	5.1%	2	2.5%
	일곱째이상	2	5.1%	1	1.3%
	계	39	100.0%	80	100.0%

母가 문제를 갖는 경우는 중학중퇴 집단이 고교중퇴 집단보다 더 많았다($\chi^2(1, N=120)=4.65, p=.03$). 그리고 국민학교 성적이 상위인 경우는 고교중퇴 집단이 중학중퇴 집단보다 더 많았다($\chi^2(2, N=119)=5.96, p=.05$).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나, '국교전 부모와 동거여부', '출생순위', '사회경제적 지위'등도 고교중퇴/중학중퇴 여부와 관련되어 있었다. 즉, 양친과 별거했던 경우는 중학중퇴 집단에서 더 많은 경향성이 있었고($\chi^2(1, N=120)=3.35, p=.07$),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는 역시 중학중퇴 집단에서 더 많은 경향성이 있었으며, ($\chi^2(6, N=119)=12.35, p=.06$).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인 경우는 고교중퇴 집단이 더 많은 경향성을 보였다($\chi^2(2, N=119)=4.99, p=.08$). 끝으로 형제의 수에 있어서 고교중퇴 집단(평균 3.69명, 표준편차 1.44)이 중학중퇴 집단(평균 3.09, 표준편차 1.27)에 비해 더 많았다($t(117)=2.33, p=.02$).

3. 犯罪類型과 學校脫落時期의 관계

強力犯/其他犯 여부와 학교 탈락 시기는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다($\chi^2(1, N=118)=4.66, p=.03$). <표 30>에서 보는 것처럼 強力犯의 경우는 고교중퇴 집단이 중학중퇴 집단보다 많았다.

<표 30> 범죄 유형과 학교 탈락 시기의 관계

		고 교 중 퇴		중 학 중 퇴	
		명	집단내%	명	집단내%
범죄 유형	강 력 범	26	66.7%	36	45.6%
	기 타 범	13	33.3%	43	54.4%
	계	39	100.0%	79	100.0%

第 4 章 論 議

第4章 論 議

본 研究에서는 犯罪 청소년들과 一般 高等학생들이 個人 性格 要因, 初期 社會文化的 要因, 狀況的 要因들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비교 研究를 하였으며, 아울러 犯罪청소년들을 犯罪 類型별로 強力犯과 其他犯으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학교탈락 시기별로 中學 中退者, 高校 中退者로 구분하여 이들 집단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犯罪 청소년들과 一般 高等학생들을 잘 변별할 수 있는 判別 要因들을 밝혀내기 위해 判別函數 分析을 하였다. 그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個人性格 要因

가. 自我概念

自我概念 檢査에서 自我수용 尺度, 道德自我 尺度, 家庭自我 尺度에서 犯罪 집단이 一般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와는 달리 身體自我 尺度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犯罪 집단이 一般 집단에 비해 자기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道德적으로 더 낮은 가치규범을 가지며, 가정에서의 갈등과 불만이 많은 반면에 자신의 건강이나 외모 등의 신체상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반영한다.

나. 性格次元

性格次元 檢査의 強忍性 次元에서는 犯罪 집단이 一般 집단보다 더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內外向性 次元, 神經症 次元에서는 두 집단간의 차이가 없었

다. 이는 犯罪 靑소년들이 一般 학생들에 비해 더 공격적이고 냉담하고 동정심이 부족하지만 一般 학생들에 비해 더 외향적이거나 神經症적이 아님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다. 其他性格 特性

失敗接近 尺度 衝動統制 尺度에서 犯罪집단이 一般학생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그밖의 內外統制尺度, 抑壓-敏感化 尺度들에서는 두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犯罪 靑소년들이 一般 학생들에 비해 더 실패추구적이고, 충동통제력이 부족하지만, 내외통제 인지 양식이나 위협자극을 접근·회피하는 방어 양상에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狀況要因

가. 狀況要因으로서의 스트레스

학교 다니던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영역에 있어서의 스트레스에서 犯罪靑소년들이 一般 학생들보다 전체 스트레스 점수상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대인관계, 가정, 이성관계, 가치관 문제, 신체와 관련된 영역, 경제적인 문제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했으나, 공부나 학교생활의 문제, 취미생활, 종교문제, 性格的인 문제등에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 스트레스 對處方式

대처 방식에 있어서는 문제집중적인 대처와 소망적인 사고를 사용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犯罪 집단에서 一般 학생들에 비해 정서완화적인 대처 방식과 사회적 지지 추구 行爲을 더 많이 보였다.

다. 학교 성적

中學 성적에 있어서는 一般 집단이 犯罪 청소년들에 비해 더 성적이 좋았다.

3. 兒童初期의 社會文化的 要因

가. 부모의 아동 양육태도

犯罪 청소년들은 一般 학생들에 비해 父로부터 합리적인 지도를 덜 받았으며, 더 적대적인 방식으로 양육되었고, 母로부터는 통제적이고 일관성있는 규제를 덜 받았고, 성취를 격려하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더 적대적인 방식으로 양육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면접을 통해서 알아본 초기 생활 환경

아동의 생활 환경면에서 볼 때 犯罪 청소년의 경우에 있어 부모의 별거, 이혼, 사망 등의 결손 가정이 一般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며, 父가 과도한 음주 습관, 폭력 행위 등의 문제 行動을 더 많이 보였으나, 母의 문제 行動에서는 두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칭찬과 처벌의 원천면에서 볼 때는 犯罪 청소년들이 一般 학생들에 비해 母로부터 칭찬을 더 적게 받고, 아울러 부모 양쪽으로부터 처벌도 더 적게 받은 반면에, 기타 가족(형제나 조부모)으로부터 칭찬이나 처벌을 더 많이 받은 결과가 나왔다.

4. 각 要因별 犯罪行動과의 관련성

個人 性格 要因, 狀況 要因, 초기의 社會文化的 要因이 犯罪行動과 관련된 정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가. 個人性格 要因

犯罪 집단과 一般 집단을 유의미하게 구별했던 要因은 自我概念중의 自我受容, 道德 自我, 身體 自我, 그리고 性格 특성중의 強忍性 次元, 失敗接近 양식 등 6가지 하위 要因들이었으며, 이들 要因들로 이루어진 判別 函數의 평균 判別力은 74.58%였다.

나. 狀況要因

두 집단을 의미있게 구별하는 要因들은 가치관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그리고 對處方式 중의 정서완화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중학 성적 등 6개의 하위 要因이었으며, 이들 要因들로 이루어진 判別函數의 判別力은 평균 85.3%였다.

다. 초기의 社會文化的 要因

判別要因으로 포함된 것은 양육태도 중의 母의 통계적인 양육, 성취격려적인 양육 방식, 父의 적대적인 양육 방식, 그리고 면접을 통해 조사된 국민학교 성적, 부모의 이혼 여부, 국교전 부모와 동거 여부, 母의 사망 여부, 父의 문제 여부, 출생 순위, 사회경제적인 지위 등 10개의 하위 要因이었으며 判別力은 84.17%였다.

라. 이들 3가지 要因들을 종합하였을 때, 判別要因으로 포함된 것은 中學 및 국교 성적, 대인관계 및 경제적, 신체적 스트레스, 性格 특성 중의 強忍性 次元, 失敗接近동기, 道德的 自我, 身體 自我, 家庭 自我 등 총 20개의 하위 要因이었으며 20개의 변인들을 모두 사용하여 判別力을 알아봤을 때 94.1%의 높은 判別力을 보였다. 이는 犯罪行動을 연구할 때 이들 要因 각각이 아니라 종합하여 함께 연구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5. 犯罪類型과 學校脫落時期別 분석

가. 犯罪類型別 分析

犯罪 청소년을 強力犯과 其他犯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를 보면, 強力犯 집단이 其他犯 집단에 비해 強忍性 尺度와 父의 과보호적 양육 태도, 性格에 관련된 스트레스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이고 父가 문제를 가진 경우가 더 적었으며, 内外統制尺度, 母의 과보호적 양육, 가치관과 관련된 스트레스에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나 더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경향성이 관찰되었고 나머지 변인들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나. 學校脫落時期別 分析

犯罪 청소년들을 중학중퇴자와 고교중퇴자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를 보면, 중학중퇴자가 고교중퇴자에 비해 失敗接近 尺度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경향이 관찰되었고, 母가 문제를 갖고 국교성적이 더 낮은 경우가 더 많이 발견되었으나, 나머지 변인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다. 犯罪類型과 學校脫落時期와의 관계 分析

이 두 要因이 유의미하게 연합되어, 고교중퇴자에서 強力犯의 비율이 많았고, 중학중퇴자들에게서 其他犯의 비율이 더 많았다.

犯罪行動에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된 要因들을 단편적으로 연구했지만, 중요한 기존 연구결과들과 본 연구결과들을 비교하고 논의하는 것은 犯罪行動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도우리라고 본다.

Eysenck(1964, 1970)는 內-外向性, 神經症, 強忍性 次元 등의 性格 특성이 犯罪行動과 높게 관련된다고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強忍性 次元에서만 유의

미한 관련성을 보이고 內-外向性, 神經症 次元에서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 등 Eysenck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좀더 부연하여 설명하면 사회적으로 무감각하고 감정 표현이 없고 위험을 무시하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強忍性적 성향은 본 연구에서도 Eysenck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犯罪行動과 관련성이 높게 나옴으로써 犯罪行動과 強忍性 次元과의 높은 관련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불안정성의 지표인 神經症적 성향, 외부 자극을 찾는 성향을 나타내는 外向적 性格 특성들 단독으로는 犯罪行動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지 않는 등 Eysenck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神經症적 성향이 높고 外向적 성향이 높은 경우에 犯罪行動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Eysenck의 시사처럼. 내-외향적 성향과 神經症적 성향을 함께 연관하여 연구하든가 아니면 본 연구와 다른 방식으로 犯罪行動을 세분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아니면 본 연구와 Eysenck의 연구간에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우리 청소년과 영국의 犯罪 청소년간의 성향의 차이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는 비교문화적 연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충동통제 성향에 관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들(McGurk, 1978; Howella, 1983; Henderson, 1983)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충동성이 犯罪行動과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지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충동성이 強力犯과 其他犯 유형, 中學중퇴와 高교중퇴등의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충동성이 犯罪行動 전반과 관련이 되는 것이지 犯罪 청소년들의 犯罪 유형이나 학교 조기탈락 여부와는 관련이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외통제 성향이 犯罪行動과 관련성을 갖지 않으며 犯罪 청

소년의 犯罪 유형과의 관련성도 시사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외부통제자가 내부통제자에 비해 공격 행동이 목표달성 수단이 못된다고 믿기 때문에 공격 행동을 덜하고 내부통제자들이 외부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력히 믿기 때문에 폭력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Kagner, 1975; Baron, 1977)를 지지하지 않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처럼 나온 이유를 추론한다면 犯罪行動이 유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총체적인 인지 양식을 나타내는 내외통제 양식이 犯罪行動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범죄 집단이 충동성향이 높은 것은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아동초기의 社會文化的 要因에 관한 본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로서 犯罪 청소년의 경우에 缺損 가정이 많고 부모로부터 적대적이고 무관심한 방식으로 키워지고 통제나 성취에 대한 격려가 결핍된 양육을 받았으며, 합리적인 지도가 결핍된 방식으로 양육되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父의 문제행동을 학습적 측면에서 犯罪 청소년들에 의해 모방이 되는 학습환경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犯罪行動에 대한 연구에서 본 연구처럼 중고교 시기에 겪는 스트레스는 狀況的 要因으로 조사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지만,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트레스와 犯罪行動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犯罪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一般 학생들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부연하여 말하자면 대인관계, 이성관계, 가치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 문제, 신체상과 관련된 문제등에서 一般학생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이 시사되었다. 그러나 공부나 학교생활상의 문제, 취미 생활, 종교 문제, 성격적인 문제 등에서는 두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공부 문제가 청소년의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고, 공부의 압력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犯罪行動에 접근하기 쉽다는 연구결과(김준호, 1989)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犯罪 청소년들이 학교 성적은 낮지만 공부 문제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더 많이 받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준호의 연구나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과 상당히 거리가 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가 犯罪 청소년들이 공부를 포기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미 犯罪를 저지르고 공부와 멀리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재평가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 다른 측면에서 犯罪 청소년들이 一般 학생들에 비해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심리적 압박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점은 犯罪者들이 대인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폭력외에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연구(노안녕, 198)와 관련성을 시사한다.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對處方式에 있어서, 犯罪집단이 문제집중적인 대처와 소망적인 사고를 사용하는 정도에서는 一般학생과 차이가 없었으나, 정서완화적인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 행동은 더 많이 보였다. 이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犯罪 청소년들이 一般학생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수동적인 대처양식인 정서완화적인 대처를 一般학생들보다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對處方式의 효율성이 낮고, 해소되지 않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대인관계에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犯罪 청소년들이 가정내에서 부모와의 관계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보이는 바, 이들이 과중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보다는 동료관계에 의지하고 있음이 시사되며, 이 점에서 동료관계를 통해 犯罪行動에 접근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對處方式의 효율성을 직접 평가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對處方式의 효율성을 직접 평가한 연구가 필요하며, 아울러

러 犯罪行動 당시의 심리적 상태, 狀況의 특성 면접을 통하여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됨으로써 犯罪行動에 접근하게 되는 심리적 과정이 좀 더 직접적으로 밝혀질 필요성이 시사된다고 할 수 있겠다.

犯罪行動에 관한 기존 연구들과 본 연구를 비교해 볼 때, 기존 연구들에서는 犯罪와 관련된 個人 性格 要因, 狀況의 要因, 社會文化的 要因 중에 어느 한 要因만에 단편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犯罪行動을 설명하려 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犯罪行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要因들을 함께 포함하여 연구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 점을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앞의 判別 函數 分析 결과를 볼 때, 個人 性格 要因, 狀況의 要因, 아동 초기의 社會文化的 要因들을 합하여 이들 要因들이 犯罪 청소년과 一般 학생을 변별할 수 있는 判別力을 봤을 때, 判別力은 이들 要因들이 개별적으로 계산되었을 때의 74.5%, 85.3%, 84.2% 보다 훨씬 높은 94.1%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犯罪行動을 연구할 때, 犯罪에 관련성이 높은 3가지 要因들을 모두 포함하여 사회학습 이론적인 입장에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一般 집단과 犯罪 집단을 判別하는데 상관이 높은 여러 要因들이 나왔는데, 이 결과들을 犯罪 豫測 尺度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의해야할 점은 본 연구에서 여러 要因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判別力이 94.1%로 높게 나왔지만, 이 연구에서의 犯罪청소년들의 반응은 少年院에 수용된 상태에서 반응으로서 少年院의 상황 특성과도 연관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좀 더 명료화하기 위하여 少年院에서 퇴소한 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원생들을 대상으로 추후 연구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할

수 있겠다.

첫째, 아동 초기의 부모 양육 태도를 조사할 때 부모에게 직접 면담해서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고 犯罪청소년들과 一般학생들에게서 정보를 얻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즉 부모에게 직접 면담하지 않음으로써 양육 방식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또한 청소년들이 초기의 과거 기억을 자기 주관적으로 회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바, 기억이 왜곡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부모들에게 직접적으로 양육 방식을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청소년들로부터 조사한 결과와 비교 연구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犯罪청소년이 겪는 스트레스는 犯罪청소년들이 중고교 시기에 경험했던 스트레스를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서 대답하도록 했는데, 이런 조사방식으로는 犯罪行動이 있을 당시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얻기보다 현재 少年院에 있으면서 자기나름대로 추측한 반응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中高等학교에서 퇴학하거나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즉 犯罪行動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個人 性格的 要因, 아동 초기의 社會文化的 要因, 狀況的 要因들이 犯罪 청소년과 一般학생들을 구별하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는 밝혔지만, 초기 社會的 要因 및 과거 경험이 犯罪性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犯罪 誘發 性格이 어떻게 형성되어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종단적인 연구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또한 앞으로는 초기의 環境 要因을 보다 분명히 하고 이러한 要因들이 性格要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아울러 性格 要因과 狀況的 스트레스가 對處方式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밝히기 위하여 좀 더 세련된 연구 방법에 의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추후연구에 대해 언급하겠다. 본 연구에서 여러 要因들을 함께 고려할 때 犯罪 집단과 一般학생을 변별할 수 있는 判別力이 매우 높게 나왔다. 이런 결과가 다른 犯罪 집단에서도 일관성있게 나타날 것인지, 즉 본 연구에서와 같이 判別力이 높게 나올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少年院에서 퇴소한 원생들, 少年院으로 오지 않고 가정으로 선도 조치된 非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을 때도 일관성있게 나올 것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겠다. 이런 연구들이 뒷받침된다면 犯罪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犯罪行動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犯罪豫測 尺度 개발 연구를 가능케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구경모(1977), 自我概念 검사 및 生活指導 診斷 검사에 의한 정상 집단과 비행 집단의 판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교육학 석사
- 김정희와 이장호(1985),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 학생연구, 18, 127-138.
- 김준호(1989),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민생치안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회 형사정책 세미나 자료
- 나철, 이길홍, 민병근(1985), 한국 청소년의 불안 및 우울 성향이 청소년 非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앙의대지, 제10권
- 노안녕(1979), 非行 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 감소에 미치는 주장 훈련의 효과, 서울대학교 : 심리학 석사
- 박성연(1989),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개발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 151-165.
- 아이젠크와 이현수(1985), 성격차원검사 요강, 서울 : 중앙적성
- 원호택(1990), 대학생의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및 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대 심리학과
- 원호택과 이민규(1990), 犯罪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의 기본 방향, 미발표 논문
- 유광수(1976), 가정 환경이 청소년 非行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의학석사, 191-199.
- 이명선(1983), R-S 척도상에 나타난 방어양상과 자극의 정서성이 지각에 미치는 효과와의 관계,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발표)
- 이상로, 변창진 및 진위교(1987), 표준화 성격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 중앙적성

- 정범모(1989), 자아개념검사 검사법 요강, 서울 : 코리안 테스트링 센타
- 차재호와 안미영(1990), 실패접근동인의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1990년도 한국심리학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초록
- Baron, R.A(1977). Human aggression, N.Y. : Plenum Press.
- Button, A(1973). Some antecedents of felonious and delinquent behavior, *Journal of Child Clinical Psychology*, 2, 35-37.
- Dengerink, H.A., O'Leaty, M.R., & Kasner, K.H.(1975). Individual differences in aggressive responses to attack :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field dependence-independ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9, 191-199.
- Eysenck, H.J.(1964). *Crime and Personality*, London : Routledge.
- Eysenck, H.J., and Eysenck, S.B.G(1970) Crime and personality : and empirical study of the three-factor theor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10,225.
- Feldman, M.P.(1977) *Criminal behavior : A psychological analysis*, London : John Wiley.
- Hindelang, M.(1972). The relationship of self-reported delinquency to scales of the C.P.I. and the M.M.P.I.,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63, 72.
- Howells, K.(1986). Social skills training and criminal and antisocial behavior in adults, in C. R. Hollin and P. Trower(eds), *Handbook of social skills training Vol.1 : Applications across the span*, Oxford : Pergamon Books.
- Krebs, B. L., & Miller, D.T.(1985). Altruism and aggression, in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3rd, ed., edited by Linzey, G., & Anderson, E, New Youk : Random House.

Megargee, E.I.(1966). Undercontrolled and overcontrolled personality types in extreme antisocial, Psychological Monograph, 80, No.3.

_____(1976). The prediction of dangerous behavior,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Mitchel, W(1968). Personslity and assessment. New Youk : Willey.

Rotter, J.B.(1954). Social learning and clinic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 Y. : Prentice-Hall.

THE PSYCHOLOGICAL RESEARCH ON THE INDUCING FACTORS OF CRIMINAL BEHAVIOR

Won, Ho Taek*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the differences between juvenile criminals and high-school students at the areas of personality traits, early and recent socio-cultural factors. Als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riminals of violence and other criminal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riminals leaving school in the junior course and those in the senior course were compared. Further, the discriminant function analyses were done.

The results on the analysis of personality traits were that the criminals had more negative self-image, lower levels of moral norms and more intrafamily conflicts compared to the students. Interestingly, the criminals had more positive body-image than the students. Furthermore, the criminals were more aggressive and colder, had higher failure-approaching motive, and more difficulties at impulse control than the students.

The results on the early socio-cultural factors showed that the criminals were reared by more hostile attitudes from their parents than the students, and their rearing attitudes were short of consistent control and achievement-encouraging atmosphere. The rate of separation, divorce, death, and problematic behavior of the criminal's parent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student's parents.

*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results on the analysis of the recent environmental factors were as follows. The criminals had higher total point on the Stress Inventory. They also experienced more stresses at the areas of the interpersonal, intrafamily and heterosexual relations, values, body-image and economical problems. However, they didn't have more stresses at the areas of study and school life.

The results of the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on each factor showed that the discriminant power between criminals and students was 74.58% on personality traits, 84.17% on early socio-cultural factors, 85.3% on recent environmental factor. Further the total discriminant power of the three factors combined was 94.1%, which point showed much higher power than calculated individually.

On the results of the final analysis, the criminals of violence had lower point on Eysenck's psychoticism scale, less stress relating to the personality problems, less father's problematic behavior or less caring attitudes than other criminals. Also, the criminals leaving school at the junior course had higher failure-approaching motive, more mother's problematic behavior and lower accomplishment at the elementary course. Other variables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On discussion, we discussed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se results and earlier research results and suggested directions of further researches.

First, it is suggested to study as research subjects the adolescents who have higher possibilities of criminal behaviors, that is, the adolescents who have left at the junior or senior course recently.

Secondly, it is suggested to do further researches elaborating on the early environmental factors for examining which effects this factor do on building a criminal-arousing character. Further, the research is suggested to examine the relations which personality factors have with stresses and stress-coping styl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other replication studies have consistently the same results as this present study, which have a very high discriminant power when three factors were combined. The replication studies shall be carried on other criminal groups, such as adolescents graduated from the Juvenile House, or juvenile delinquents who don't attend the Juvenile House and go to their house owing to less severely delinquent behaviors. If these replication studies have consistently higher discriminant power as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do the research developing the scale for forecasting criminal behaviors.

附錄

附 錄

〈表 1〉 부모와 동거여부

	일 반 집 단		비 행 집 단	
	명	집단내 %	명	집단내 %
국교전				
양친 동거	100	100.0%	115	82.1%
부와 별거	0	.0%	6	4.3%
모와 별거	0	.0%	7	5.0%
(양친별거	0	.0%	12	8.6%)
계	100	100.0%	140	100.0%
현재				
부와 별거	2	2.0%	11	7.9%
모와 별거	2	2.0%	12	8.6%
양친 별거	2	2.0%	33	23.6%
(양친동거	94	94.0%	84	60.0%)
계	100	100.0%	140	100.0%

〈表 2〉 부 및 모의 문제

	일 반 집 단		비 행 집 단	
	명	집단내 %	명	집단내 %
부				
신체적인 질병	5	5.0%	10	7.1%
정신과적인 질병	0	.0%	2	1.4%
범죄	0	.0%	1	.7%
알콜중독	5	5.0%	30	21.4%
폭력문제	0	.0%	5	3.6%
실직문제	0	.0%	1	.7%
기타	0	.0%	2	1.4%
(문제없음	90	90.0%	89	63.6%)
계	100	100.0%	140	100.0%
모				
신체적인 질병	7	7.0%	8	5.7%
알콜중독	1	1.0%	0	.0%
폭력문제	0	.0%	1	.7%
가출	0	.0%	4	2.9%
기타	0	.0%	3	2.1%
(문제없음	92	92.0%	124	88.6%)
계	100	100.0%	140	100.0%

〈表 3〉 부모의 이혼여부

	일 반 집 단		비 행 집 단	
	명	집단내 %	명	집단내 %
이 혼	1	1.0%	22	15.8%
별 거	0	.0%	19	13.7%
이혼후재결합	0	.0%	3	2.2%
(이혼경험없음	99	99.0%	95	68.3%)
계	100	100.0%	139	100.0%

〈表 4〉 친부모 여부

	일 반 집 단		비 행 집 단	
	명	집단내 %	명	집단내 %
친부만 존재	1	1.0%	12	8.6%
친모만 존재	1	1.0%	17	12.1%
양부	0	.0%	1	.7%
양모	0	.0%	18	12.9%
양부모	0	.0%	1	.7%
부모없음	0	.0%	2	1.4%
(양친 친부모	98	98.0%	89	63.6%)
계	100	100.0%	140	100.0%

〈表 5〉 칭찬 및 처벌의 원천

	일 반 집 단		비 행 집 단	
	명	집단내 %	명	집단내 %
칭찬				
양친	15	20.3%	18	20.5%
부	11	14.9%	19	21.6%
모	44	59.5%	37	42.0%
기타가족	4	5.4%	14	15.9%
계	74 *	100.0%	88 *	100.0%
처벌				
양친	21	24.1%	14	11.2%
부	22	25.3%	61	48.8%
모	43	49.4%	31	24.8%
기타가족	1	1.1%	19	15.2%
계	87 * *	100.0%	125 * *	100.0%

* 칭찬을 안받는다고 대답한 일반집단의 26명과 비행집단의 30명은 제외됨

* * 처벌을 안받는다고 대답한 일반집단의 13명과 비행집단의 8명은 제외됨.

〈表 6〉 국민학교 성적

	일 반 집 단		비 행 집 단	
	명	집 단내 %	명	집 단내 %
상 위	75	75.8%	32	23.0%
중 위	18	18.2%	56	40.3%
하 위	6	6.1%	51	36.7%
계	99	100.0%	139	100.0%

〈表 7〉 사회경제적 지위(SES)

	일 반 집 단		비 행 집 단	
	명	집 단내 %	명	집 단내 %
상 위	8	8.0%	7	5.0%
중 위	83	83.0%	57	41.0%
하 위	9	9.0%	75	54.0%
계	100	100.0%	139	100.0%

〈表 8〉 중학교 성적

	일 반 집 단		비 행 집 단	
	명	집 단내 %	명	집 단내 %
상 위	67	67.0%	12	9.0%
중 위	28	28.0%	52	39.1%
하 위	5	5.0%	69	51.9%
계	100	100.0%	133	100.0%

성 격 차 원 검 사

—성 인 용—

시빌아이젠크(런던대학교 교수)

이 현 수(중앙대학교 교수) 공저

남·여 _____ 세 직업 : _____

P	E	N	L

〈지 시〉

아래 물음에 대하여 〈예〉나 〈아니오〉에 ○표해 주시오.

어디에 ○표를 해도 좋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질문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표 하시오.

1. 당신은 취미가 다양합니까? 예 아니오
2. 사실은 남이 한 일에 대해서 당신이 칭찬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 당신은 말이 많은 편입니까? 예 아니오
4. 당신은 빗을 지면 걱정됩니까? 예 아니오
5. 당신은 별 이유도 없이 비참하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6. 당신 몫보다 더 많은 것을 욕심 부립니까? 예 아니오
7. 당신은 밤마다 문단속에 세심한 주의를 합니까? 예 아니오

8. 당신은 활기가 넘칩니까? 예 아니오
9. 당신은 때때로 해서는 안될 일이나 말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하고나서 괴로와 합니까?..... 예 아니오
10. 당신은 한번 약속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지킵니까? ... 예 아니오
11. 당신은 평소에 즐거운 파티에 가면 즐길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12. 당신은 쉽게 화를 내는 편입니까?..... 예 아니오
13. 사실은 당신의 잘못으로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4. 당신은 새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 아니오
15. 당신은 감정이 쉽게 상합니까? 예 아니오
16. 당신의 습관은 모두 옳고 바람직합니까? 예 아니오
17. 당신은 사교장소에서도 뒷자리만 차지하는 편입니까? 예 아니오
18. 당신은 위험한 부작용이 올지도 모르는 약을 복용하곤
합니까?..... 예 아니오
19. 당신은 가끔 지겨운 기분이 듭니까? 예 아니오
20. (편이나 단추같이 사소한 것일지라도)남의 물건을 빼앗아
본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1. 당신은 외출하는 것을 몹시 좋아합니까? 예 아니오
22.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재미있습니까? 예 아니오
23. 당신은 죄의식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4. 당신은 가끔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 아니오
25. 당신을 해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6. 당신은 자신이 신경질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27. 당신은 친구가 많습니까? 예 아니오

28. 당신은 때로는 정말 사람을 해칠수도 있는 못한 장난을
즐겁니까?..... 예 아니오
29. 당신은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까? 예 아니오
30. 어렸을 때 당신은 투덜대지 않고 즉시 시키는 대로
일했습니까?..... 예 아니오
31. 당신은 스스로가 낙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32. 당신은 앞으로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합니까? ... 예 아니오
33. 당신은 남의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부숴뜨린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4. 당신은 새로 친구를 사귄 때 보통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35. 당신은 자신이 매우 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36.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주로 말이
없는 편입니까? 예 아니오
37. 당신은 결혼이 시대에 뒤떨어진 구습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38. 당신은 가끔 약간 과장해서 떠벌리는 일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9. 당신은 지루한 파티에 쉽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40. 당신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걱정합니까? 예 아니오
41. 당신은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2. 당신은 친구에게 농담이나 재미나는 이야기를 잘 합니까? ... 예 아니오
43. 많은 것들이 당신에게는 꼭 같이 느껴집니까? 예 아니오
44. 당신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릇없게 군 적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45. 당신은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좋아합니까? 예 아니오
46. 당신이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알게되면 걱정합니까? 예 아니오
47. 당신은 불면증으로 고생합니까? 예 아니오

48. 당신은 음식을 들기 전에 꼭 손을 씻습니까? 예 아니오
49. 당신은 누가 말을 걸어오면 거의 항상 즉석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50. 당신은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약속장소에 나가는
편입니까?..... 예 아니오
51. 당신은 아무 이유없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까? ... 예 아니오
52. 당신은 게임할 때 속임수를 쓴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3. 민첩한 행동을 요하는 일을 하기 좋아합니까? 예 아니오
54. 당신의 어머니는 훌륭한 여성입니까? 예 아니오
55. 당신은 가끔 인생이 따분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까? ... 예 아니오
56. 당신은 사람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7. 당신은 가끔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이상의 활동을 떠맡곤
합니까?..... 예 아니오
58. 당신을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 아니오
59. 당신은 외모에 대해 신경을 많이 씁니까? 예 아니오
60. 당신은 사람들이 저축이나 보험으로 미래를 안정시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61. 당신은 죽었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62. 결코 발각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당신은
탈세하겠습니까?..... 예 아니오
63. 당신은 모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64. 당신은 난처한 일을 당하고 나면 오랫동안 고민합니까? 예 아니오
65. 당신의 주장을 고집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66. 당신은 신경과민 입니까? 예 아니오

67. 당신의 잘못이 없는 데도 우정이 쉽게 깨집니까? 예 아니오
68. 당신은 가끔 외롭다고 느낍니까? 예 아니오
69. 당신은 가끔 동물에게 지분거리기를 좋아합니까? 예 아니오
70. 당신이 한 일을 남이 비판하면 곧 속이 상합니까? 예 아니오
71. 당신은 약속시간에 늦었거나 주어진 시간내에 일을 처리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72. 당신은 소란스럽고 떠들석한 것을 좋아합니까? 예 아니오
73. 남이 당신을 두려워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예 아니오
74. 당신은 의욕이 넘치다가 몹시 의기소침해지곤 합니까? 예 아니오
75. 당신은 오늘 해야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일이 종종 있습니까?
..... 예 아니오
76. 다른 사람들이 당신더러 생기가 넘친다고 합니까? 예 아니오
77.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예 아니오
78. 당신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성미가 까다롭게 굽니까? 예 아니오
79. 덮에 걸린 짐승을 보면 몹시 가엾은 생각이 듭니까? 예 아니오

※ 혹시 하나라도 빠뜨렸거나 빼놓은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 보시오.

자 아 개 념 검 사

〈지 시〉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검사는 바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자아개념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자아개념을 올바르게 파악함으로써 여러분의 성격과 행동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며, 좀 더 건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검사의 내용을 잘 읽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보 기〉

이 검사 안에는 여러분이 일상 생활에서 당면하는 자기 자신에 관련된 문제들이 항목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항목을 하나 하나 읽어나가면서 그 글이 나에게

- | | | | | | |
|----------------------------------|---|---|---|---|---|
| 1. “항상 그렇다고” 생각되면 5에 | 1 | 2 | 3 | 4 | ⑤ |
| 2.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되면 4에 | 1 | 2 | 3 | ④ | 5 |
| 3. “그렇다” “아니다”가 반반이라고 생각되면 3에 | 1 | 2 | ③ | 4 | 5 |
| 4.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2에 | 1 | ② | 3 | 4 | 5 |
| 5.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되면 1에 | ① | 2 | 3 | 4 | 5 |

보기와 같이 해당 숫자 위에 ○표를 하시오.

	그런경우 가 거 의 없 다	대체로 그렇지 않 다	그렇다와 아니다가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 상 그렇다
1. 나의 몸은 온통 쭈시고 아프다.	1	2	3	4	5
2. 나의 모습에 대하여 나는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3. 내 신체의 어떤 부분들은 좀 달라졌으면 한다.	1	2	3	4	5
4. 몸이 늘 거뜨하지 않다.	1	2	3	4	5
5. 나는 나의 용모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	1	2	3	4	5
6. 나의 몸은 건강하다.	1	2	3	4	5
7. 나는 운동이나 게임(놀이)을 잘 못한다.	1	2	3	4	5
8. 어떤 때에는 어처구니 없이 행동할 때가 종종 있다.	1	2	3	4	5
9. 나는 병든 사람이다.	1	2	3	4	5
10. 나의 몸은 연약한 편이다.	1	2	3	4	5
11. 나는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른편도 아니다.	1	2	3	4	5
12. 나의 용모는 매력있는 편이다.	1	2	3	4	5
13. 나는 항상 말쑥하고 깨끗한 옷차림을 좋아한다.	1	2	3	4	5
14. 내 키는 너무 큰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은 편도 아니다.	1	2	3	4	5
15. 나는 몸의 불편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16. 나에게는 성적매력이 없는 것 같다.	1	2	3	4	5
17. 나는 몸을 상당히 아끼는 편이다.	1	2	3	4	5
18. 나는 잠을 잘못 잔다.	1	2	3	4	5

A	6		1		11		4		17		7		계
	13		10		14		3		15		8		
	12		9		2		16		5		18		

	그런경우 가 거 의 없 다	대체로 그렇지 않 다	그렇다와 아니다가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 상 그렇다
19.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지 못한다.	1	2	3	4	5
20. 나는 대개 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1. 나는 나의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 만 족하고 있다.	1	2	3	4	5
22. 나는 강한 도덕적 생각과 태도를 지니 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23. 나는 예의와 체면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1	2	3	4	5
24. 본의 아니나마 하게 되는 거짓말을 앞 으로 좀 삼가야 하겠다.	1	2	3	4	5
25. 나는 매사에 있어서 체면을 지키는 것 만을 생각하는 것 같다.	1	2	3	4	5
26. 나는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부끄럽지 않 을 정도로 체면을 지켜야 할 일은 잘 지킨다.	1	2	3	4	5
27. 자신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1	2	3	4	5
28.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1	2	3	4	5
29. 나는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올바르지 못한 수단을 사용할 때가 가끔 있다.	1	2	3	4	5
30. 나는 나쁜 사람이다.	1	2	3	4	5
31. 나는 체면도 염치도 없는 사람이다.	1	2	3	4	5
32.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1	2	3	4	5
33. 나는 보다더 믿음직스럽게 보였으면 좋 겠다.	1	2	3	4	5
34. 나는 체면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1	2	3	4	5
35. 나는 점잖고 예절바른 사람이다.	1	2	3	4	5
36.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어 려운 일이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격게 된다.	1	2	3	4	5

B	35		31		21		33		23		29		계
	34		30		27		25		20		19		
	32		22		26		24		28		36		

	그런경우 가 없	대체로 그렇지 않	그렇다와 아니다가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 상 그렇다
37. 어떤 욕망을 쉽게 억제할 수 있다.	1	2	3	4	5
38. 나의 마음은 변하기를 잘 한다.	1	2	3	4	5
39. 나는 감정을 격함이 없이 나에게 대한 비난을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40. 나는 나의 문제들을 아주 쉽게 해결해 나간다.	1	2	3	4	5
41. 일을 할 때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시작한다.	1	2	3	4	5
42. 이만하면 나도 상냥하고 친절할 사람이 라고 할 수 있다.	1	2	3	4	5
43. 나는 지금의 처지에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44. 나는 의욕(하고 싶은 마음)을 상실해 가고 있다.	1	2	3	4	5
45. 나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1	2	3	4	5
46. 나는 나 자신을 멸시하고 있다.	1	2	3	4	5
47. 나는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못된다.	1	2	3	4	5
48. 이만하면 나는 머리가 좋은 편이다.	1	2	3	4	5
49. 나는 남의 미움을 받을만 하다.	1	2	3	4	5
50. 나는 침착하고 조용한 사람이다.	1	2	3	4	5
51. 나는 어떤 일에 부딪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쉽게 단념하는 일이 많다.	1	2	3	4	5
52. 나는 어떠한 사태에서도 나 자신을 잘 가누어 나갈 수 있다.	1	2	3	4	5
53. 나는 명랑하고 쾌활한 사람이다.	1	2	3	4	5
54. 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여 달아나려고 한다.	1	2	3	4	5

C	53		49		43		47		52		38		계
	37		45		48		46		40		41		
	50		44		42		51		39		54		

	그런경우 가 거 의 없 다	대체로 그렇지 않 다	그렇다와 아니다가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 상 그렇다
55. 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	1	2	3	4	5
56. 나는 나의 친구들에게나 가족들에게 꽤 중요한 존재이다.	1	2	3	4	5
57. 나는 우리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58. 나는 나의 집안 식구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59. 나는 집안 식구들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다.	1	2	3	4	5
60. 집에서 나에게 분담된 일은 자신이 한다.	1	2	3	4	5
61. 나는 집안 식구들이 말하는 일들에 너 무 신경을 쓰는 편이다.	1	2	3	4	5
62. 내판에는 우리집 식구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3. 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할 도리를 다하고 있다(부모님이 생존해 계시지 않으면 과거의 일로 생각하시오).	1	2	3	4	5
64. 나는 이제까지 나의 가족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불신(不信) 속에서 생활해 왔다.	1	2	3	4	5
65. 나는 우리집 가족이 기대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66.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1	2	3	4	5
67. 나는 집안 식구들과 다투는 일이 있다.	1	2	3	4	5
68. 우리집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여도 나를 항상 도와 줄 수 있는 가정이다.	1	2	3	4	5
69. 나는 나의 가족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 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70. 나는 우리집 식구들이 나를 별로 신통 치 않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71. 나는 친구들로 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 고 있다.	1	2	3	4	5
72. 나와 우리집 식구들과의 관계는 만족스 러운 편이다.	1	2	3	4	5

D	68		57		72		61		59		67		계
	56		71		63		64		60		66		
	55		70		62		58		69		65		

	그런경우 가 거의 없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와 아니다가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 상 그렇다
73.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1	2	3	4	5
74.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점이 있다는 것 을 발견한다.	1	2	3	4	5
75. 다른 친구가 보는 입장이나 관점을 이 해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76.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좀 더 잘 어울려서 지내야 하겠다.	1	2	3	4	5
77. 사교적인 면에서 볼 때 나에게는 좋은 점이라곤 없다.	1	2	3	4	5
78. 세상 되어가는 일이 나를 격분시킨다.	1	2	3	4	5
79. 나는 남자들 간에 인기가 있다.	1	2	3	4	5
80.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 는 힘든 일이다.	1	2	3	4	5
81. 남들이 나를 친밀하게 사귀기는 썩 어 렵다.	1	2	3	4	5
82. 이만하면 나도 비사교적인 편은 아니다.	1	2	3	4	5
83.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좀 더 친해야 하겠다.	1	2	3	4	5
84.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행동한다.	1	2	3	4	5
85. 나는 여자들간에 인기가 있다.	1	2	3	4	5
86. 나는 나의 처세술(사회생활을 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87.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다.	1	2	3	4	5
88.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근한 사람이다.	1	2	3	4	5
89.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나 는 쉽사리 용서하지 않는다.	1	2	3	4	5
90. 나는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어딘 지 어색함을 느낀다.	1	2	3	4	5

E	88		78		82		83		75		90		계
	85		87		86		77		74		89		
	79		81		84		76		73		80		

	그런경우 가 거 의 없 다	대체로 그렇지 않 다	그렇다와 아니다가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 상 그렇다
91. 나는 어찌다가 거짓말을 하는 수가 있다.	1	2	3	4	5
92. 어떤 때에는 특별한 대상도 없이 욕설 을 하고 싶은 때가 있다.	1	2	3	4	5
93. 놀이나 게임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이 기고 싶다.	1	2	3	4	5
94. 이따금 남에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스러운 생각을 하는 수가 있다.	1	2	3	4	5
95. 오늘 중에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수가 있다.	1	2	3	4	5
96. 화를 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찌다가 화를 내는 수가 있다.	1	2	3	4	5
97. 어찌다가 남의 험담 이야기를 하는 수 가 있다.	1	2	3	4	5
98. 기분이 언짢을 때에는 화를 잘 내는 일 이 가끔 있다.	1	2	3	4	5
99. 나는 가끔 이성에 관한 농담을 하고 웃 는다.	1	2	3	4	5
100.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5

[illegible]

답 안 지 <자아 개념 검사>

이름		남 녀	학교	학교 대학	학년 반 번 학과 년	
생년 월일	19 년 월 일	생 만 세	검 사 년월일	19 년 월 일	시작시간	()분간
					끝난시간	

	I	II	III	$\Sigma\rho$	V
A					
B					
C					
D					
E					
$\Sigma\rho$					
V					

S.C

D점수 5's 4's 3's 2's 1's

$\times 2$

$\times 1$

$\times 1$

$\times 2 = 100$

$+$

$+$

$+$

$=$

自 我 概 念 點 數 比 較 表 (中·高等學生用)

T 尺	P 尺	自 我 評 價 SC	自 我 肯 定 點 數									變散點數			分 布 點 數 D	P 尺	P 尺
			總 自 我 肯 定 TP	自 我 同 一 性 I	自 我 受 容 II	自 我 行 動 III	身 體 的 自 我 A	道 德 的 自 我 B	性 格 的 自 我 C	家 庭 的 自 我 D	社 會 的 自 我 E	總 自 我 變 數 TV	內 的 變 數 CV	外 的 變 數 RV			
	99.99			145		140									200	99.99	
			400						85			95	50				
80	99.9	50	390	140	135	135	85			85	85			45	190	99.9	80
				130	130			85	80	80	85	45	40		180		
		45	380	135							85				170		
	99			125			80	80		80	80	45	40		165		
			370	130	125	125				75	75		35		160		
			360	125					75		70	40			155	99	
70															150		70
					115			75								145	
	95	40	350			120				75	70						95
			340	120			75					65			140		
	90		330	110	115			70	70	70	65	60	35	30	135		
				115	105		70								130	90	
60	80		320			110				65					125		60
															120	80	
		35	310	110	100	105			65	60	60	50		25	115	70	
	70														110		
	60		300	105		100	65	65	60			45	25			60	
50															105	50	50
			290	100	95		60	60	55	60		40		20	100		
	40	30	280	95	90	95					55				95	40	
													20		90	30	
	20		270	90		90	55	55	50		50	35		15			
				85	85										85	20	40
40			260				50			50		30	15				
		25				85		50							80	10	
	10		250	80	80	75			45						70		
											45				60	5	
	5		240	75		80				45							
30							45									30	
						75		45	40		40	25		10	50		
	1	20	230	70	70	70	40	40		40		20	10		40	1	
			220														
				65	65	65			35		35						
			210	60	60	60	35		30	35	35				30		
20				55	55	55										20	
	0.1	15					30	35		30						0.1	20
			200		50	45					30					0.01	
10	0.01																10
P 点数																P 点数	

自 我 概 念 點 數 比 較 表 (大學生用)

T 尺	P 尺	自 我 評 價 SC	自 我 肯 點 定 數									變散點數			分 布 點 數 D	P 尺	T 尺
			總 自 我 肯 定 TP	自 我 同 一 性 I	自 我 受 容 II	自 我 行 動 III	身 體 的 自 我 A	道 德 的 自 我 B	性 格 的 自 我 C	家 庭 的 自 我 D	社 會 的 自 我 E	總 自 我 變 數 TV	內 助 變 數 CV	外 的 變 數 RV			
	99.99															99.99	
	99.9														170		
-80	99.9	45							85			85	45		165	99.9	-80
				135		130		85				85			160		
	99		380		125		85		80			80		40	155		
			370	130	120		80	80		80	75	70	40	35	150	99	
						125						65			145		
-70						120			75						140		-70
															135		
	95	40	360								70		35	30	130	95	
				125											125		
	90		350		115			75	70	75		60			120	90	
			340	120	110		75				65	55	30		115		
-60															110		-60
	80							70		70		50		25	105	80	
															100		
	70	35	330	115	105		70		65						105	70	
			320			110									100		
	60		310			105	65	65	60	65	60	45	25		95	60	
-50				110	100										90		-50
	60		300									40		20	85	50	
				105	95										80		
	40	30	290		90	100	60	60	55	60	55		20		75	40	
				100								35			70		
-40			280			95					50				65		-40
				85		90	55		50					15	60		
	10	25	270	95			55	55		55		30			55	10	
			260	90		85	50			50					50		
					80										45		
	5			85	75			50	45		45		15		40	5	
-30															35		-30
															30		
															25		
	1	20	250			80	45		40	45		25			20	1	
			240	80	70	75				40					15		
			230	75		70									10		
							65					20		10	5		
-20			200				30	40		30	35				0		-20
	0.1														0.1		
									30								
10	0.01															0.01	10
P 点数																P 点数	

自 我 概 念 點 數 比 較 表 (一般)

T 尺	P 尺	自 我 評 價 SC	自 我 肯 定 點 數									變散點數			分 布 點 數 D	P 尺	T 尺
			總 自 我 肯 定 TP	自 我 同 一 性 I	自 我 受 容 II	自 我 行 動 III	身 體 的 自 我 A	道 德 的 自 我 B	性 格 的 自 我 C	家 庭 的 自 我 D	社 會 的 自 我 E	總 自 我 變 數 TV	內 的 變 數 CV	外 的 變 數 RV			
	99.99	50	410	145	140	140		95		90						99.99	
			400									95			200		
80	99.9			140	135	135		90	85	85	85			45		99.9	80
		45	390	135		130	85	85	80		80	90	50	40	100		80
			380		125							85			170		
	99		370	130	125		80	80		80		80	45		160	99	
			360	125	120	125					75	75		35	155		
70		40							75			70	40		150		70
			350		115	120					70				145		
	95		340	120			75	75	70	75		65	35	30	140	95	
	90		330	115	110	115		70		70	65	60			130	90	
60			320		105		70					55			125		60
	80		310			110			65			50			120	80	60
		35										45		25	115		
	70		300	110	100	105			60	65	60				110	70	
	60			105			65	65					25		105	60	
50	50		290	100	95	100	60	60	55	60		40		20	100	50	50
	40	30	280	95	90	95			50		55		20		95	40	
	30		270	90	85	90	55	55	50	55		35		15	90	30	
40	20										50				85	20	40
		25	260	85		85	50	50		50		30	15		80		
	10		250		80										75	10	
	5			80	75				45		45				70	5	
30			240	75			45			45		25		10	65		30
		20	230	70	70	75	40	45	40	40	40	20	10		60	20	
	1		220			70		40							55	1	
			210	65	65	65	35	35	35	35	35				50		
20		15	200	60	60	60	30	35	30	30					45	0.1	20
	0.1			55	55	55		30									
					50	45					30						
10	0.01															0.01	10
P 点数																P 点数	

내 외 통제 검사

〈지 시 문〉

이 검사에는 문제 하나하나에 두가지 의견이 실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을 읽고 당신의 생각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의견에 (V)표를 해 주십시오. 즉, 각 문제마다 1)과 2)의 두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답안지에서 1)이나 2) 둘 중 당신의 생각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의견 앞에 (V) 표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의 문제를 예로 봅니다.

() 1) 아이들이 빗나가는 것은 부모가 너무 야단을 치기 때문이다.

() 2) 아이들이 빗나가는 것은 부모가 너무 엄러 기르기 때문이다.

위의 문제에서 1)이 2)보다 당신의 생각에 더 가깝다면 1)앞에 있는

()에 (V) 표를 적어 넣습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대답해 주십시오.

1. () 1) 아이들이 빗나가는 것은 부모가 너무 야단을 치기 때문이다.

() 2) 아이들이 빗나가는 것은 부모가 너무 엄러 기르기 때문이다.

2. () 1) 일어날 일은 기여코 일어나고야 만다.

() 2) 노력하지 않고 운수만 믿었을 때에는 결과가 아주 좋지 않았다.

3. () 1) 세상은 착실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 2) 착실히 사는 것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다.

4. () 1) 자식은 가르치기 나름이다.
() 2)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안될 아이는 안된다.
5. () 1) 사람은 모두 이기적인 적이다.
() 2) 사람의 본성은 남을 돕기를 좋아한다.
6. () 1) 계획만 잘짜면 일은 다 된거나 다름없다.
() 2) 아무리 계획을 잘짜도 운이 나빠 망치는 수가 있다.
7. () 1) 하려고만 하면 부정부패는 일소할 수 있다.
() 2) 정치인들이 하는 일에 일반인이 손을 쓰기란 대단히 힘들다.
8. () 1)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이다.
() 2) 해야 할일 분명히 정해 주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이다.
9. () 1)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밉다.
() 2) 사람은 사귀어보면 다 좋다.
- 10.() 1) 사람의 모든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주장해야 한다.
() 2) 사회의 모든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집권자 자신의 이해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 11.() 1) 내가 노력해야 좋은 배필을 만난다.
() 2) 연분이 닿아야 좋은 배필을 만난다.
- 12.() 1) 자기의 잘못은 기꺼이 받아 들이는게 옳다.
() 2) 잘못은 했지만 덮어 두는 것이 좋을 때가 더러 있다.
- 13.() 1) 잘 살고 못 살고는 팔자 소관이다.
() 2) 얼마나 잘 사느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에 달려 있다.
- 14.() 1) 국민도 나라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2) 일반 국민은 나라 일에 왈가왈부해 봤자 소용없다.

- 15.() 1) 될성 싶지 않은 나무는 떡잎 때부터 알아 본다.
() 2)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 16.() 1) 사회의 부정은 대개 정치인들에게 잘못이 있어 그렇다.
() 2) 사회의 부정은 국민 하나하나에 그 책임이 있다.
- 17.() 1)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
() 2) 정치 및 사회적인 일에 적극 참여하면 우리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18.() 1) 사람이란 결국 자기의 값어치에 따라 존경을 받게 마련이다.
() 2) 불행한 일이긴 하나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가끔 있다.
- 19.() 1) 돈벌이는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된다.
() 2) 돈벌이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 20.() 1) 농사가 잘되는 것은 하늘의 소관이다.
() 2) 농사가 잘되고 안되는 것은 그저 부지런히 일하는 데 달렸다.
- 21.() 1) 유능한 사람이라도 운이 나쁘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
() 2) 유능하면서도 지도자가 못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 강 및 의 견 조 사

〈지 시 문〉

이것은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항목으로 모아둔 것입니다.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그 글이,

1. 당신을 잘 나타낸 것이든지, 당신 생각과 같은 것이면 그렇다.

2. 당신을 잘 나타내지 못했든지, 당신 생각과 다르면아니다.

를 결정하여 보기에서 처럼 답안지의 해당하는 칸에 까맣게 칠하시오.

이 검사는 옳고 그른 답이라고는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의견 그대로를 대답하면 됩니다.

그렇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가능한 한 다 답하시오.

시간 제한은 없으나,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읽고 빨리 답하시오.

보 기

그렇다.	☒	☐	☐	☐
	1	2	3	4
아니다.	☐	☒	☒	☒

1. 아침에 일어나면 으레히 상쾌하고 거뜨하다.
2. 손발이 찰 때가 많다.
3. 나의 일상 생활은 재미있는 일로 가득차 많다.
4. 목에 무엇이 꼭 막혀 있는것 같은 때가 있다.

5. 말이나 행동이 감정에 좌우되는 일이 별로없다.
6.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일을 생각할 때가 가끔 있다.
7. 때때로, 갑자기 웃음과 울음이 터져서 참지 못하는 때가 있다.
8. 말썽스러울 때는 입을 다무는 것이 상책이라 믿는다.
9. 일에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다.
10. 무슨 일이든 마음내키는 대로 하지는 않는다.
11. 내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이 많다.
12. 업무를 못내서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이나 일을 해 내지 못한 때가 있다.
13. 잠을 잘 깨고, 잘 이루지 못한다.
14. 늘 머리가 온통 쭈시고 아프다.
15. 내가 한 일에 후회하는 적이 거의 없다.
16. 나의 신체적 건강은 보통사람 같이 좋다.
17. 심장이나 가슴이 아파서 고생한 일이 있다.
18. 학교 친구나, 오랫동안 못 본 친구들이 먼저 인사하기 전에는 모르는 체하고 지나가는 것이 마음 편하다.
19. 나는 남과 잘 어울린다.
20. 침착해서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
21.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22. 나는 우울한 때가 많다.
23. 정말 나는 자신(自信)이 없다.
24. 인생은 살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25.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냉정하고 침착해진다.
26. 사람들에게 진실을 납득시키려면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
27. 사람들은 잘 되기 위한 거짓말도 한다.
28. 후회할 일이 많다.
29. 집안 사람들과 말다툼 하는 일이 매우 드물다.

30. 사고 싶은 물건을 사지 않고는 못 배긴다.
31. 나는 사회정의를 믿는다.
32. 근육이 경련하거나 꿈틀거리는 일이 가끔 있다.
33.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무관심한 편이다.
34.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나 하고 느끼는 때가 많다.
35.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36. 나는 늘 행복하다.
37. 전방진 사람이 일을 청하면 옳은 일이라도 반대하고 싶어진다.
38. 가끔 내 머리를 끈으로 꼭 조이는 것 같이 느낀다.
39. 남 못지 않게 나도 유능하고 재치있는 것 같다.
40. 놀이나 게임은 내기를 걸어야 신이 난다.
41. 사람들은 이익을 위하여 약간 공정치 못한 수단을 쓴 것이 보통이다.
42. 나는 까닭없이 자주 짜증이나 심술이 난다.
43. 병에 걸릴까봐 걱정이다.
44. 남이 나에게 잘 해줄 때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45. 하고 싶은 말은 도저히 참지를 못한다.
46. 비난이나 꾸지람을 들으면 괴장히 속이 상한다.
47. 내 행동은 대부분 주위 사람들의 관습에 좌우된다.
48. 나는 정말 쓸모없는 자라고 느낄 때가 있다.
49. 간혹, 주먹다짐을 하고 싶은 때가 있다.
50. 몸이 화끈거리거나 근질근질 할 때가 있다.
51. 결심을 빨리 못하기 때문에 자주 손해를 본다.
52.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남이 조언을 구하거나 해서 그 일을 중단케 하면 화가 난다.
53. 거의 매일 밤, 잠냄에 시달리지 않고 잠든다.
54. 걸핏하면 나는 잘 운다.

55. 기분내키는 대로 순간적인 행동을 할때가 많다.
56. 무엇을 읽어도 전과 같이 이해할 수가 없다.
57. 지금은 어느 때 보다는 건강하다.
58. 나도 모르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분개한다.
59. 나는 쉽게 피로를 느낀다.
60. 화를 잘내지만 풀어지기도 잘한다.
61.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관해서 공부하고 읽기를 좋아한다.
62. 나는 유력한 사람들을 사귀고 싶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나 자신이 유력하게 느껴지니까.
63. 모임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재주를 보이는 것이 꽤 어렵고 불안하다.
64. 수줍음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써야 할 때가 많다.
65. 가끔 나 자신이 남을 해칠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66. 현기증이 나는 일이 있다.
67. 나의 기억력은 꽤좋은 것 같다.
68. 성문제(性問題)로 고민한다.
69.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이 거북하다.
70. 갑자기 자신의 마음을 건잡을 수 없을 때가 있다.
71. 미쳐 버릴까 두렵다.
72. 무엇을 하려할 때 손이 떨릴 때가 많다.
73. 오래 글을 읽어도 눈이 지치지 않는다.
74. 거의 언제나 기운이 없다.
75. 흥분하면 진정하기 어렵다.
76. 자주 두통이 난다.
77. 난처하거나 당황하면 땀이 나서 몹시 괴로워진다.
78. 걸을 때 몸이 비틀거리는 일이 있다.
79. 난 너무 수줍어 한다.

80. 보통사람들보다 더 감정적이다.
81. 여러 가지 놀이와 오락을 즐긴다.
82. 인도(人道)를 걸을 때 길바닥의 금(시멘트 같은 것을 이은)을 밟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애를 쓴다.
83. 나는 걱정이 너무 많다.
84. 가슴이 뛰거나, 숨이 가빠지는 일이 있다.
85. 스릴을 즐긴다고 위험한 일을 할 때가 많다.
86. 쉽게 화를 내지만, 곧 풀린다.
87. 깊은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다.
88. 안절 부절,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할 때가 많다.
89. 남에게 감추는 일을 자주 꿈꾼다.
90. 갑자기 웃음이나 울음이 터져서 참지 못할 때가 있다.
91. 나는 남들보다 더 신경질적이다.
92.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일이 많다.
93. 무슨 일이건 시작에 곤란을 느낀다.
94.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95. 차마 입밖에 낼 수 없을 정도로 나쁜일을 생각할 때가 가끔있다.
96. 한 주일에 한 두번 몹시 흥분한다.
97. 많은 사람 가운데 있을 때, 적당한 화제를 찾기 어렵다.
98. 외출할 때 문단속이 잘 되었는지 걱정한다.
99. 낯선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을 자주 느낀다.
100. 가끔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101. 매일 나는 물을 굉장히 마신다.
102. 죄인이 재치있는 변호사의 변론이나 석방 당할 때 그런 법률이 항상 못마땅하다.
103. 일을 하려면 나는 굉장히 긴장하고 애를 써야 한다.

104. 먼저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걸어 오기 전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다.
105. 행동을 한 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를 때가 간혹 있다.
106. 인생이란 늘 나에게서 과중한 부담이다.
107. 학교 다닐 때 학생들 앞에 나가 이야기 하기가 꽤 어려웠다.
108.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대개 고독을 느낀다.
109. 누구나 급할 때는 거짓말을 한다.
110.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은 쉽게 단념해 버린다.
111. 나는 쉽게 당황한다.
112. 돈과 사업에 대해서 걱정한다.
113. 참지 못하고 쉬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된다.
114.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관해서 거의 언제나 불안을 느낀다.
115. 미칠듯이 날뛰 때가 간혹있다.
116.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잠을 이룰 수 없을 때가 더러 있다.
117. 남들이 내게 말하는 것은 곧 잊어버리기로 한다.
118. 사소한 일이라도 행동하기 전에 일단 멈춰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119.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을 피하려고 건너편으로 갈 때가 자주 있다.
120. 기분좋지 않을 때는 금방 울화가 치민다.
121. 가끔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것 같이 생각된다.
122.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세어보는 버릇이 있다.
123. 이상하고 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124.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일이나, 물건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해 왔다.
125. 싫은 소리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 화풀이를 한다.
126. 모임에 늦으면 들어가기가 두렵다.
127. 남들보다 정신 집중하기가 어렵다.
128. 자신이 없어서 시작한 일을 그만두는 때가 여러번 있었다.

129. 씻어 버릴 수 없는 불길한 생각이 떠오르곤 한다.
130. 대수롭지 않은 일로 곧잘 화를 낸다.
131. 간혹 중요하지도 않은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 며칠이고 나를 괴롭힌다.
132. 거의 매일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
133. 일들을 어렵게 보는 버릇이 있다.
134. 남들 보다 나는 유난히 민감하다.
135. 남이 말리는 일은 더 하고 싶어진다.
136. 때때로 정신 활동이 보통 때보다 둔한 것 같다.
137. 갑자기 우울해 지는 일은 거의 없다.
138. 내가 말한 것이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나 않을까 걱정한다.
139.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주 실망한다.
140. 화가 나면 닥치는대로 마구 내던진다.
141. 나에 관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나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142. 내가 계획한 일이 무척 어려운 것 같아서 포기하는 일이 많다.
143. 모든 일이 잘되어 가더라도 만사가 귀찮아질 때가 있다.
144. 난관이 너무 커서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
145. 시작한 때는 열성을 보이나 곧 흥이 식어버린다.
146. 가끔 어린아이로 되돌아 갔으면 하고 원한다.
147. 내가 아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나 자신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진다.
148. 실망으로 인한 타격이 어찌나 큰지 내 마음으로 부터 씻어버릴 수가 없다.
149. 때때로 나는 전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150. 가끔 나도 모르게 고함을 지른 때가 있다.
151. 불행을 예상하고 걱정을 많이 한다.
152. 내가 잘 할 것 같지 않다고 남들이 생각하면, 하고 싶은 일도 그만 두기가 일쑤다.

[illegible]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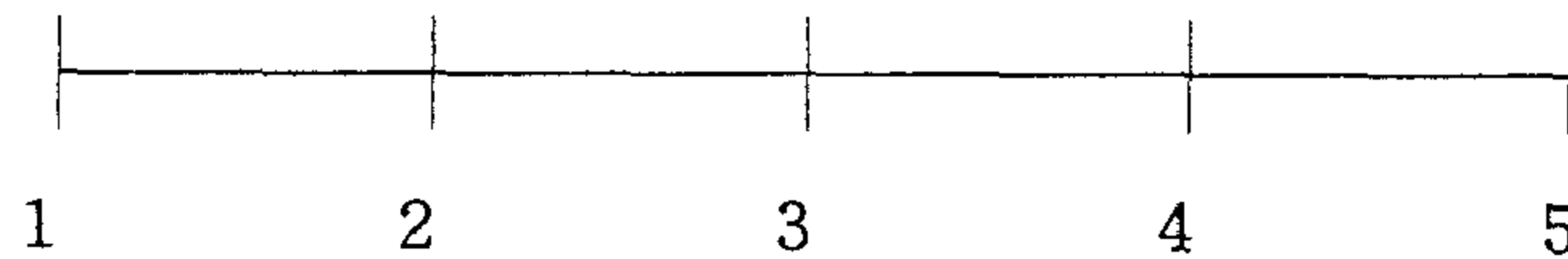
〈지 시 문〉

이 검사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어떻게 키웠는지(양육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부모의 양육태도를 알아보는 많은 문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자신에게 주로 어떻게 대했는지 가장 가까운 번호에 다음 보기와 같이 V표 해주시면 됩니다.

보기)

거의 그렇지 반반 그런 늘
그렇지않다 않은편 이다 편이다 그렇다.



어머니, 아버지 각각에 대해서 V표 해주시고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_____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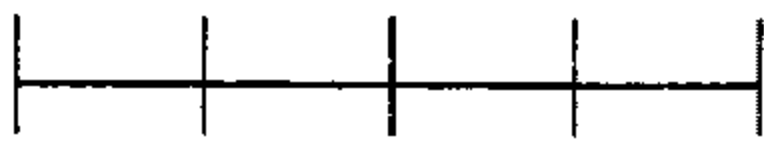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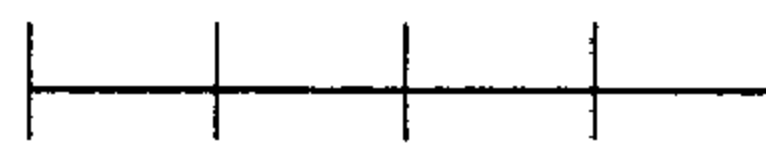
2. _____가 하는 행동을 제한하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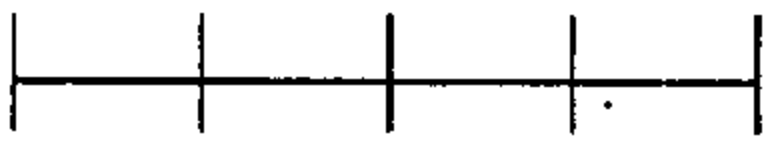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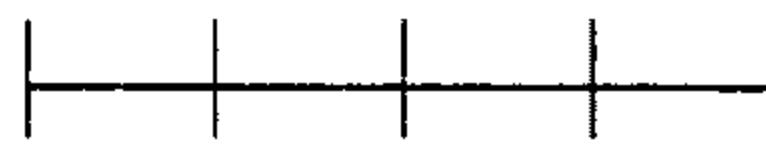
3. ____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놀 때 잘 대해주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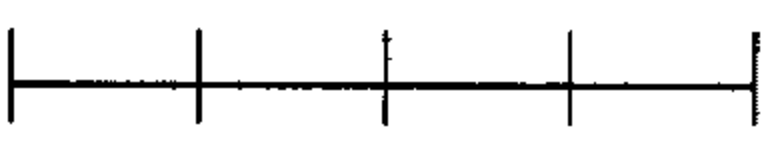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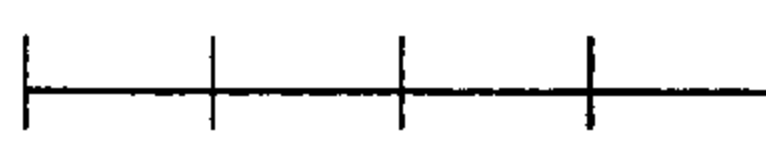
4. ____가 보는 만화나 TV, 그밖의 놀이에 대해 일일이 간섭을 하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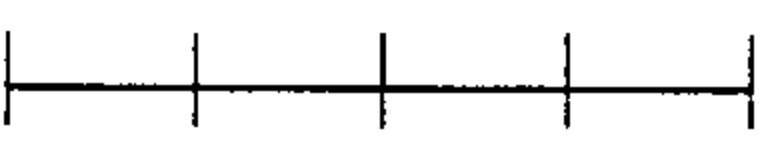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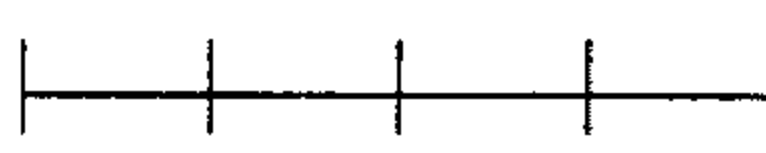
5. ____가 정해진 취침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꼭 지키도록 하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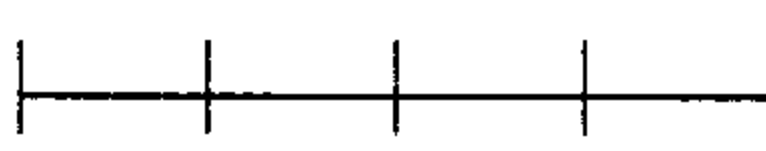
6. ____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어보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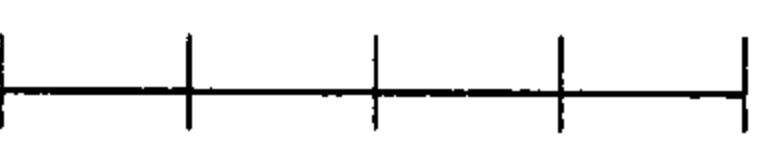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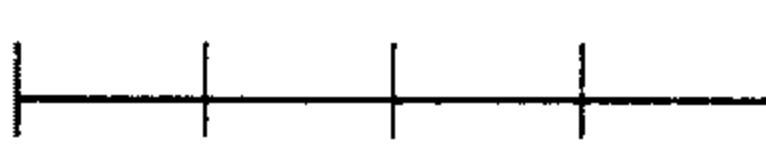
7. 새로운 일에 대해 ____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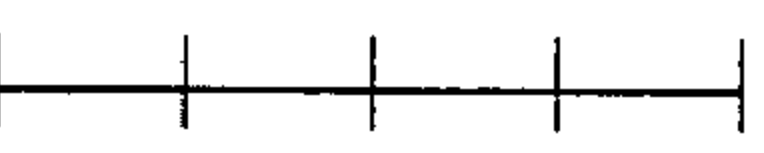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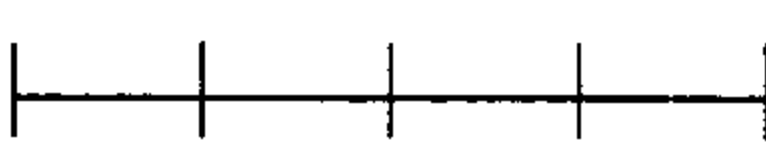
8. ____의 잘못을 고치려고 잔소리를 하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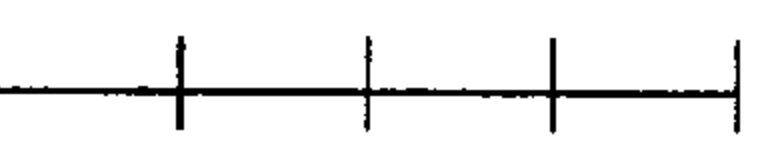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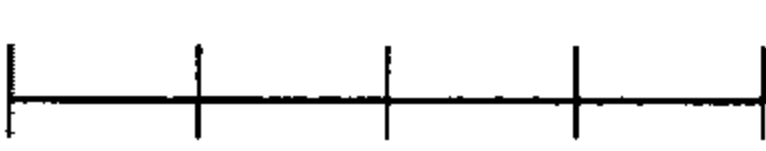
9. ____가 어머니(아버지)와 정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게끔 하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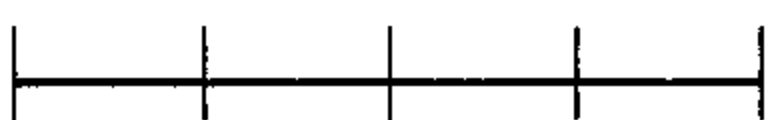
아버지 : 
1 2 3 4 5

10. ____와 함께 외출하거나 놀아주는 일을 좋아하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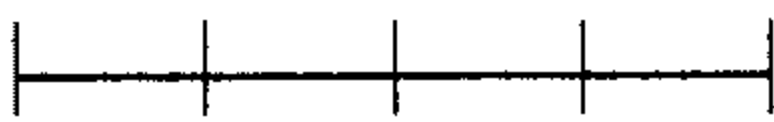
11. ____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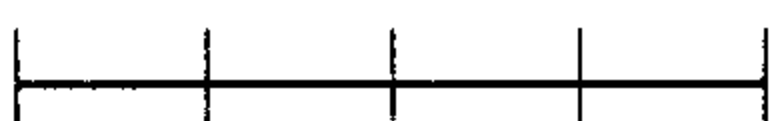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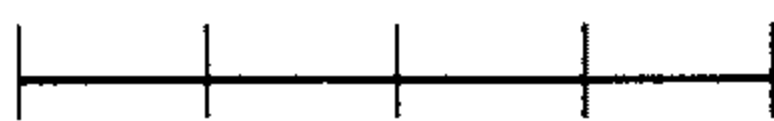
12. ____가 부주의한 행동을 할 경우, 그로 인한 결과를 설명해주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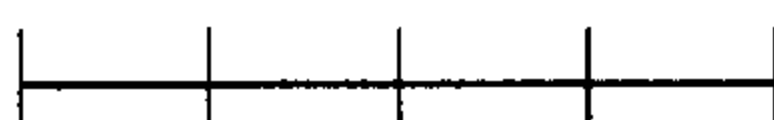
13. ____에게 허락한 TV시청시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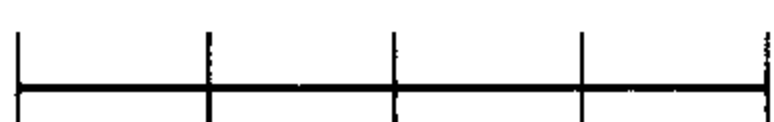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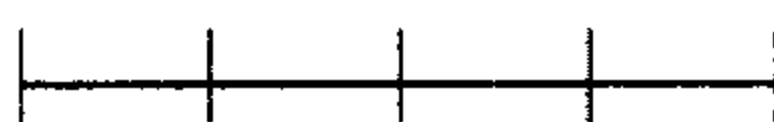
14. ____의 잘못에 대해 어머니(아버지)가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이유를 ____에게 말해 주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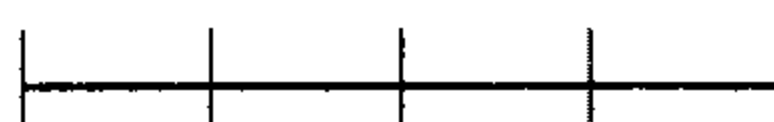
15. ____가 무서워하거나 슬퍼할 때 의지가 되어 주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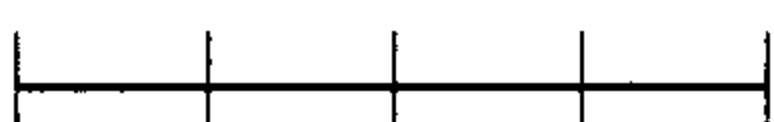
아버지 : 
1 2 3 4 5

16. ____ 혼자서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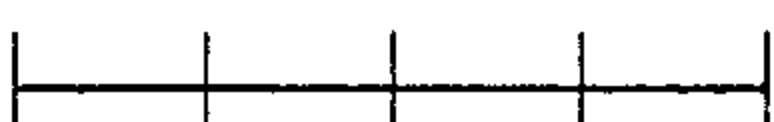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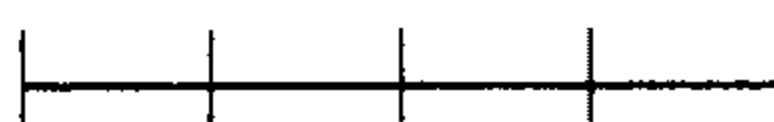
17. ____가 하는 일을 잠자코 보지 못하고 간섭을 하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아버지 : 
1 2 3 4 5

18. ____가 어떤 제안을 하면 그것에 대해 깊이 고려해 보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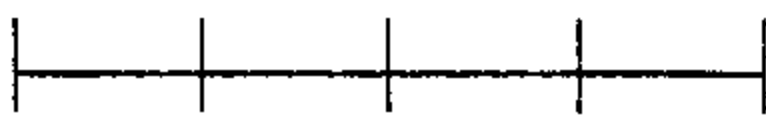
19. ____가 실수를 했더라도 꾸짖기보다는 애썼다하면서 괜찮아하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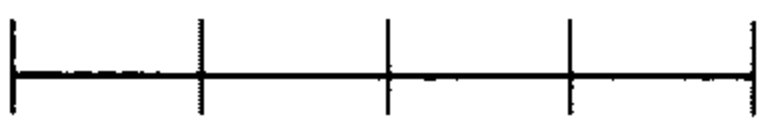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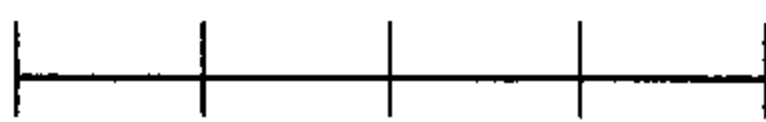
20. ____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려 하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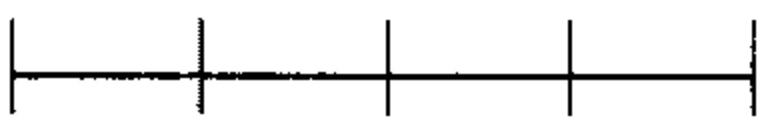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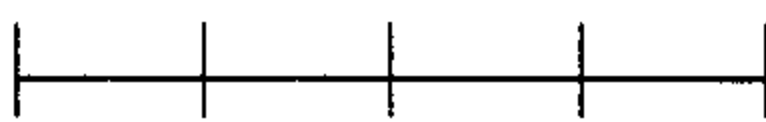
21. ____가 흥미를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있게 알아보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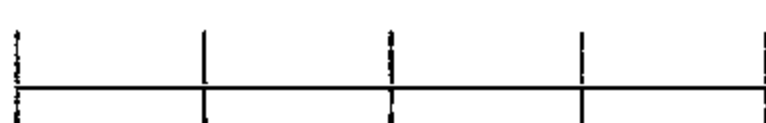
22. ____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도 도와주어야 마음이 편하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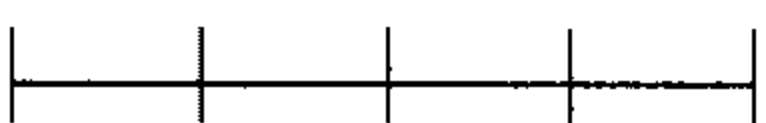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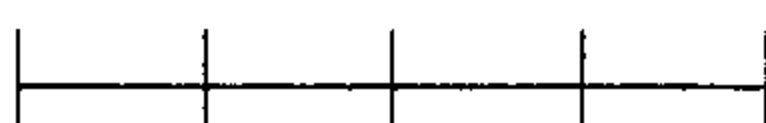
23. ____를 껴안아 주고 다독거려 주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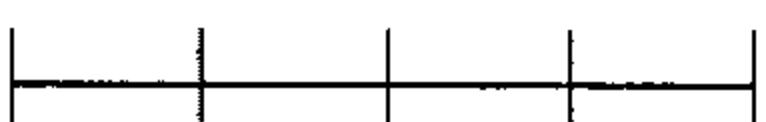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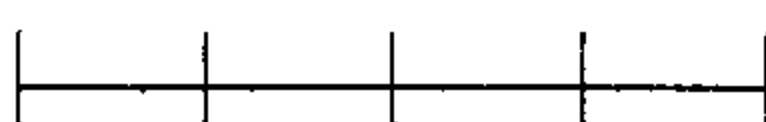
24. ____에게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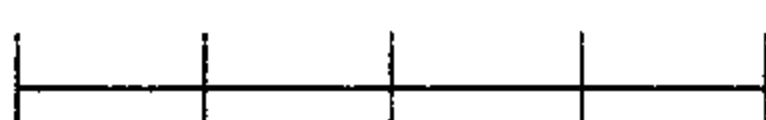
25. ____가 생활의 전부이므로 항상 옆에서 자녀를 보살펴야만 마음이 놓이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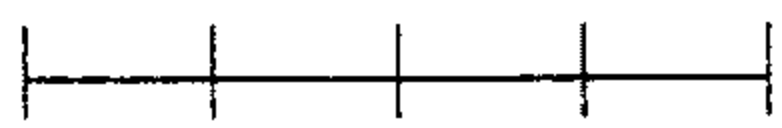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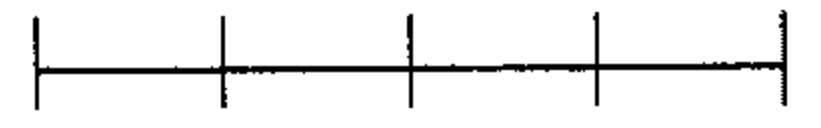
26. ____가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잔소리를 하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아버지 : 
1 2 3 4 5

27. ____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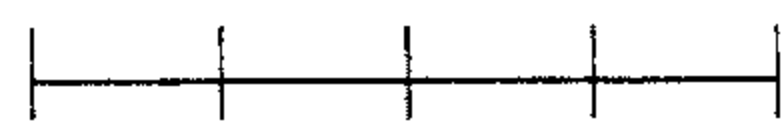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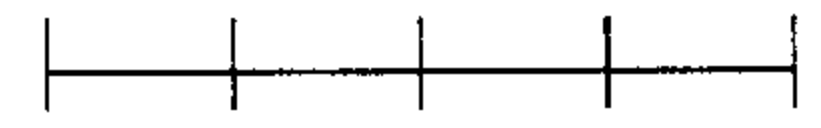
28. ____의 요청이나 질문을 못 들은 척 하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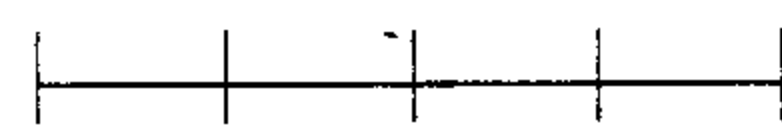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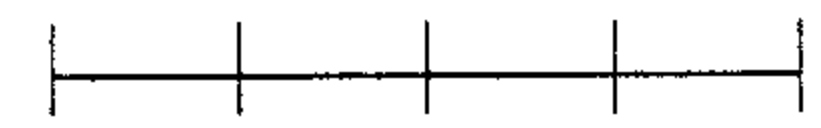
29. ____와 무슨 이야기든지 허물없이 나누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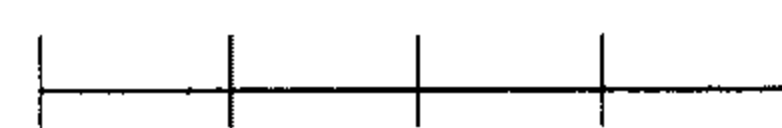
아버지 : 
1 2 3 4 5

30. ____가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____에게 잘 설명해 주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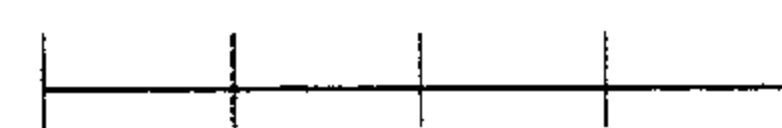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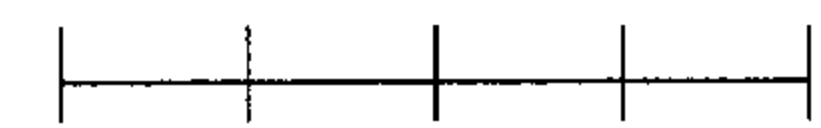
31. ____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들인가를 가르쳐 주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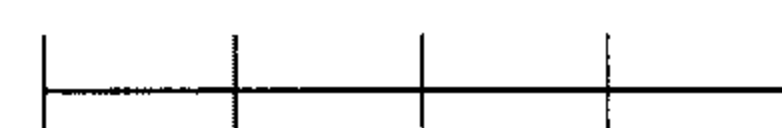
아버지 : 
1 2 3 4 5

32. ____가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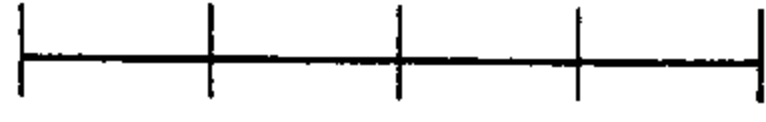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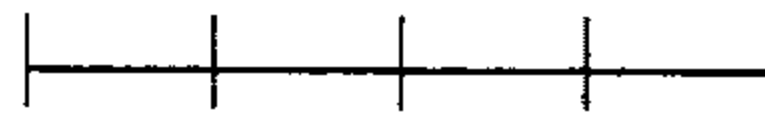
33. ____가 어떤 일에 실수했을 때, 이해해 주시지는 않고 꾸중만 하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아버지 : 
1 2 3 4 5

34. ____에게 부드럽게 대답하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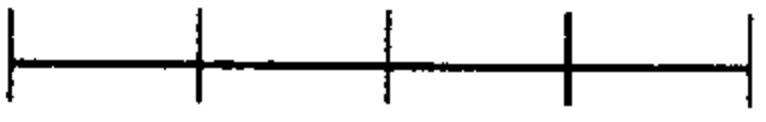
아버지 : 
1 2 3 4 5

35. 출거나 비오는 날 집안에서 ____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아버지 : 
1 2 3 4 5

36. ____가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열중해 있으면 엉뚱한 짓을 한다고 나무라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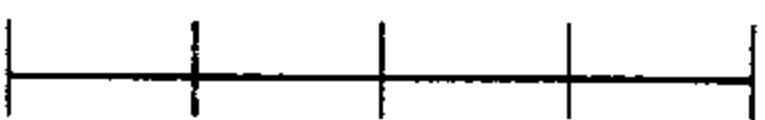
37. ____의 말을 무시해버리니까?

어머니 : 
1 2 3 4 5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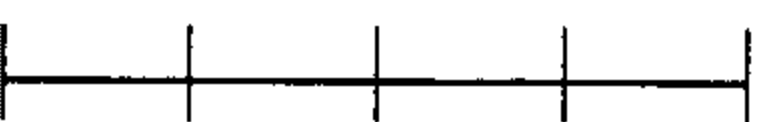
38. ____가 말을 붙이면 귀찮아 하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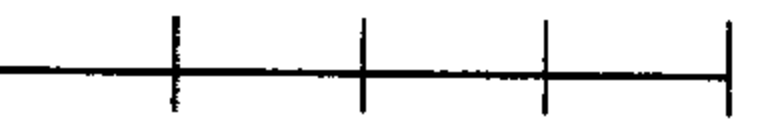
아버지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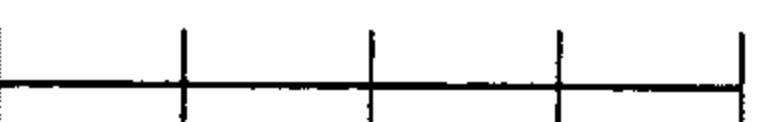
39. ____와 함께 활동적인 놀이를 하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아버지 : 
1 2 3 4 5

40. ____의 좋은 점을 보지 않고 나쁜 점만 들추어 내십니까?

어머니 : 
1 2 3 4 5

아버지 : 
1 2 3 4 5

41. ____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어머니 : |-----|
1 2 3 4 5

아버지 : |-----|
1 2 3 4 5

42. ____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지시를 하십니까?

어머니 : |-----|
1 2 3 4 5

아버지 : |-----|
1 2 3 4 5

43. ____에게 벌을 줄 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까?

어머니 : |-----|
1 2 3 4 5

아버지 : |-----|
1 2 3 4 5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질문지

〈지 시 문〉

본 질문지는 학생들이 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긴장과 피로움을 어느 정도 겪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학교 그만두기 이전 6개월 동안에 경험한 스트레스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 문항 한 문항을 읽으면서 학교 그만두기 이전 6개월 동안에 경험한 각 문항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느정도 긴장과 피로움을 겪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해당란에 V 표시 하시면 됩니다. 솔직하고 성의있게 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응 답 요 령〉

각 문항의 스트레스 때문에 경험한 긴장과 피로움의 정도에 따라

매우 심하게 받는다. 4

심하게 받는다. 3

꽤 받는다. 2

거의 안받는다. 1

전혀 안받는다. 0에 V표 하시면 됩니다.

매 우 심하게 받는다 심하게 받는다 꽤 받는다 거의 안 받는다 전혀 안 받는다

1. 성적이 나빠서 4 3 2 1 0

2. 노력에 비해 공부가 안되어서 4 3 2 1 0

3. 시험이라는 것을 생각만 해도	4	3	2	1	0
4.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4	3	2	1	0
5. 주의집중이 안되고 잡념이 많아서	4	3	2	1	0
6. 친구와의 경쟁에서 뒤질것 같아서	4	3	2	1	0
7. 가족이나 교사가 성적 때문에 처벌을 하거 나 비난해서	4	3	2	1	0
8. 부모가 공부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하고 강요해서	4	3	2	1	0
9. 주변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4	3	2	1	0
10. 비난하거나 괴롭히는 친구 때문에	4	3	2	1	0
11. 선배들의 괴롭힘 때문에	4	3	2	1	0
12. 불량배들의 폭력 때문에	4	3	2	1	0
13. 친구들에 비해 열등감이 많아서	4	3	2	1	0
14. 지나치게 공부만 하거나 경쟁적인 친구 때문에	4	3	2	1	0
15. 친구가 비행을 저질러서	4	3	2	1	0
16. 주변 사람들의 불행 때문에	4	3	2	1	0
17. 부모님이 사망해서	4	3	2	1	0
18. 부모님의 부부싸움(가정불화) 때문에 ...	4	3	2	1	0
19. 부모님이 지나치게 잔소리를 하고 일방적 으로 요구해서	4	3	2	1	0
20. 부모님이나 가족의 편애 때문에	4	3	2	1	0
21. 부모님이 남과 비교해서 얘기해서	4	3	2	1	0
22. 부모님의 귀가시간이 늦거나 잦은 외출 때문에	4	3	2	1	0

23.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4	3	2	1	0
24. 식구들이 나에 대해 무관심해서	4	3	2	1	0
25. 형제간의 사이가 안좋아서	4	3	2	1	0
26. 가족중 말썽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서 ...	4	3	2	1	0
27. 부모님을 속이거나 잘못된 일 때문에 ...	4	3	2	1	0
28. 교사의 구타나 무리한 처벌 때문에	4	3	2	1	0
29.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편애 때문에	4	3	2	1	0
30. 학교생활 자체가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	4	3	2	1	0
31. 다니는 학교가 마음에 안들어서	4	3	2	1	0
32. 학교환경이 비좁고 시끄러워서	4	3	2	1	0
33. 자위행위 때문에	4	3	2	1	0
34. 이성 친구가 배신을 해서	4	3	2	1	0
35. 이성 친구가 비행을 저질러서	4	3	2	1	0
36. 이성 친구에 대한 잡념 때문에	4	3	2	1	0
37. 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적인 욕구 때문에...	4	3	2	1	0
38.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4	3	2	1	0
39. 이성친구가 나를 무시해서	4	3	2	1	0
40.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4	3	2	1	0
41. 효과적인 공부방법을 알 수가 없어서 ...	4	3	2	1	0
42. 얼굴이나 체격이 남보다 못나서	4	3	2	1	0
43. 성기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4	3	2	1	0
44. 개성이 없는것 같아서	4	3	2	1	0
45. 쉽게 긴장하고 불안해 하거나 겁이 많아서...	4	3	2	1	0
46. 남녀차별 대우 때문에	4	3	2	1	0
47.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4	3	2	1	0
48. 보람있는 학교생활이 무엇인지 몰라서 ...	4	3	2	1	0

49. 비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4	3	2	1	0
50.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가 들어서	4	3	2	1	0
51. 여러가지 사회문제들 때문에	4	3	2	1	0
52. 취직에 대한 걱정 때문에	4	3	2	1	0
53. 진로문제에 있어 부모와의 의견차이 때문에...	4	3	2	1	0
54. 장래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서	4	3	2	1	0
55.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4	3	2	1	0
56. 집안 경제형편이 어려워져서	4	3	2	1	0
57. 용돈이 부족해서	4	3	2	1	0
58. 공부할 수 있는 안락한 공부방이 없어서...	4	3	2	1	0
59. 현재의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4	3	2	1	0
60. 종교활동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4	3	2	1	0

* 위에 언급된 문항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항목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을 하는 항목들은 다음에 제시되는 검사 대처방식 체크리스트-를 하는데 필수적인 항목이므로 신중하게 또 성실하게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1. 긴장과 피로움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은 것 (항목)을 적으세요. ()
2. 가장 스트레스 받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매 심하게 받는다	우 심하게 받는다	심하게 받는다	꽤 받는다	거 안 는	의 받 다	전 안 는	혀 받 다
3. 이 사건으로 얼마나 긴장과 피로움을 받았는지 그 정도를 V 표시해 주십시오.	4	3	2	1	0			
4. 현재 이 사건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 정도를 V 표시해 주십시오.	4	3	2	1	0			

대처 방식 체크 리스트

〈지 시 문〉

이제 방금 적으신 가장 스트레스를 받은 사건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이 일을 다루어 나가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지를 각 항목에서 적당한 번호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 가장 스트레스를 받은 사건 : _____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나는	사용하지않음/ 해당되지않음	약 간 사 용	어느정도 사 용	아주많이 사 용
1.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념한다—다음 단계의 준비.	0	1	2	3
2. 그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것을 자세히 분석해 본다.	0	1	2	3
3. 그 일을 잊기 위하여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한다.	0	1	2	3
4. 잘 안 되리라 생각하지만, 적어도 무엇인가 해보기로 한다.	0	1	2	3
5. 그 일에 대해 좀 더 알아 보려고 누군가와 이야기 한다.	0	1	2	3
6. 자신을 반성하거나 교훈을 얻는다.	0	1	2	3

7. 운으로 돌린다. 때로는 운이 나쁠 때도 있으니까.	0	1	2	3
8.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군다.	0	1	2	3
9. 다른 사람들의 동정과 이해를 받아 들인다.	0	1	2	3
10. 그 일에서 무엇인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얻는다.	0	1	2	3
11.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0	1	2	3
12. 전문적인 도움을 청한다.	0	1	2	3
13. 어떤 대책을 시도해 보기 전에, 우선 무 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기다려 본다.	0	1	2	3
14. 활동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다.	0	1	2	3
15. 그 일이 지금보다 더 나쁠 수도 있었음 을 스스로 일깨운다.	0	1	2	3
16. 시작 때보다 좋은 경험을 얻고 끝낸다.	0	1	2	3
17. 문제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사람과 이 야기를 한다.	0	1	2	3
18. 잠시 거기에서 물러나 있다.	0	1	2	3
19. 무엇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기분을 전환한다.	0	1	2	3
20. 새로운 신념을 얻는다.	0	1	2	3
21. 긍지를 가지고 곳곳이 베풀어 나간다.	0	1	2	3
22. 일어난 일(또는 상황)이나, 나의 느낌 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	0	1	2	3
23. 일이 잘되어 나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 를 변화시킨다.	0	1	2	3

24. 그 일에 사로 잡히지 않는다:그것에 대하여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0	1	2	3
25. 존경하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한다.	0	1	2	3
26.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다.	0	1	2	3
27. 그 일을 무시해 버린다: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는다.	0	1	2	3
28. 자신이 느끼고 있는 바를 누구에게 말한다.	0	1	2	3
29. 내 입장을 지키면서 바라는 바를 위하여 싸운다.	0	1	2	3
30.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	0	1	2	3
31. 문제 해결을 위해 몇가지 대책을 세운다.	0	1	2	3
32. 내가 할 말이나 생각을 속으로 되풀이한다.	0	1	2	3
33.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은 경우를 상상하거나 공상한다.	0	1	2	3
34. 그 일이 사라지거나 끝나버리기를 바란다.	0	1	2	3
35. 일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공상이나, 소망을 한다.	0	1	2	3
36. 그 일이 잘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한다.	0	1	2	3
37.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일이 잘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한다.	0	1	2	3

동 기 진 단 검 사

—〈지 시 문〉—

이 검사는 여러분의 동기를 진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장에는 여러분의 동기를 알아보는 많은 문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문항 하나 하나를 읽으신 다음, 밑에 표시된 척도에 따라 그 문항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긍정) 혹은 반대(부정)하시는지의 정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는 것입니다.

“아주 찬성”이면	+3
“찬성”이면	+2
“약간 찬성”이면	+1
“찬성도 반대도 아님”이면	0
“약간 반대”이면	-1
“반대”이면	-2
“아주 반대”이면	-3

주의 하실 점은 숫자 앞에 나와 있는 부호(+, -)도 같이 적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문항도 빠뜨리지 않고 해 주셔야 합니다.

- () 1. 나는 성공이 확실한 일 앞에서 망서릴 때가 있다.
- () 2. 나는 조금이라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일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
- () 3. 나는 내가 남보다 뒤떨어지는 것에 일종의 자부심을 갖는다.

- () 4. 나는 하던 일에 실패하면 포기하기 보다는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하는 편이다.
- () 5. 나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일 보다는 나쁘다고 하는 일만 골라 하는 경향이 있다.
- () 6. 나는 성공을 해서 부담감을 안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실패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 () 7. 나는 숙제가 좀 어렵거나 힘들 때는 쉬운 것만 골라하기 보다는 숙제를 못 끝내도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는 편이다.
- () 8. 나는 밀쳐봐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시험에 임한다.
- () 9. 나는 내가 실패함으로써 사회나 나의 부모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10. 나는 실패는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 () 11. 나는 어디서나 일등이 되는 것은 피하려 한다.
- () 12. 나는 내 인생이 막가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살아간다.
- () 13. 나는 실패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
- () 14. 나는 실패하면 남들이 기대하지 않으니까 좋다고 생각한다.
- () 15. 나는 실패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오는 일에서 자기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
- () 16. 나는 남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우스꽝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다.
- () 17. 나는 실패했을 때, 두렵거나 불안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
- () 18. 나는 지는 것이 싫어서 경쟁적인 게임은 피하는 편이다.
- () 19. 나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일보다는 내 자신이 보기에 전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일에 곧 잘 덤벼든다.

- () 20. 나는 실패를 많이 겪은 사람을 존경한다.
- () 21. 나는 어떤 일을 하다 실패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 () 22. 나는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더 즐거움을 느낀다.
- () 23. 나는 뻔히 실패할 줄 알면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는 때가 많다.
- () 24. 나는 실패할 것이 뻔한 일이라도 덤벼들어 한다.

개인 면접지

면접일 : 1990년 월 일

면접자 :

인적 사항 : 이름 : _____, 연령 : 만 _____ 세, 성별 : 남, 녀, 종교 : _____

학력 : 대퇴, 고졸, 고퇴, 중졸, 중퇴, 국졸, 국퇴

현재 생활 중 제일 힘든 일들 :

여기(소년원 또는 감별소)에 들어오게 된 사건, 계기는?(환경적 요인과 그 당시의 심정 등), 또 퇴학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개인력〉

출생지 :

성장지(국졸까지) :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시골)

주거지(소년원 들어오기 전) :

전학 회수, 이사 회수 :

부모와의 동거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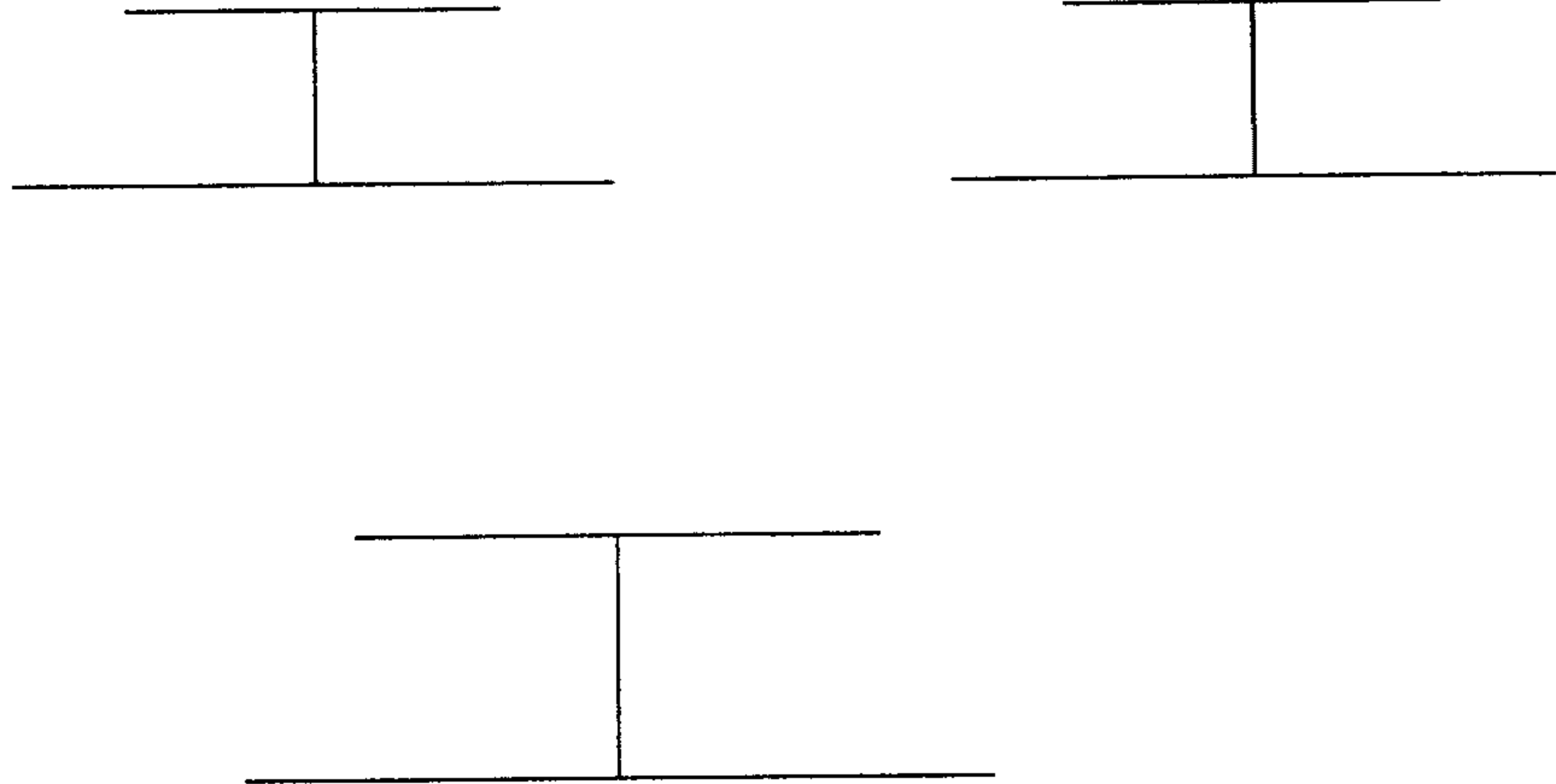
어릴 때 누가 키웠나, 양육자의 성격 :

큰 병 앓은 적 :

성적(특히 국5, 6학년, 중, 고) :

가정의 경제수준(부모의 직업, 학력, 월급등) :

〈가족력〉



3대의 사망유무, 사인

직계가족(부모, 형제)의 나이, 학력, 직업 :

문제있는 사람 있는지(예 : 병, 정신병, 노이로제, 범죄, 술, 약물, 폭력, 가출,

무직, 직업 자주 바꾸는 것 등 부모 속썩이는 행동) :

부모 이혼 여부 :

친부모 여부 :

부모의 성격, 부부관계, 집안분위기 :

칭찬, 처벌은 주로 누가? 처벌 방식은?:

■ 著者略歷 ■

- 서울대학교 師範大學 卒業
- 서울대학교 教育大學院 卒業(教育學 碩士)
- 高麗대학교 大學院 卒業(文學博士)
- 서울대학교 社會科學大 心理學科 教授
- 서울대학교 學生生活研究所 所長

■ 主要著書 ■

- 高等學校 在學生의 스트레스 實態調査(學術振興財團 支援研究報告書), 1987.
- 韓國人의 自殺의 社會心理學的 理解, 現代社會研究所 26號, 1987.
- 靑少年 自殺의 心理學的 理解, 韓國카운슬러 年次大會特講(協會報), 1988.
- 김중술, 元鎬澤譯, 臨床心理學, 서울: 法文社, 1988.
- 大學生의 스트레스 對處訓練 프로그램, 學校相談에서의 集團相談프로그램의 活用 漢陽대학교 學生生活研究所, 1988.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주장은 집필자의 의견으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힘.

연구보고서 90-12 〈정가 : 5,000원〉

靑少年 犯罪行動 誘發 要因에 대한 心理學的 研究

발행	1991년 5월 일
발행인	한영석
발행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전화 : (02)575 - 5282/9
등록	1990. 3. 20 제 21 - 43호
인쇄	문중인쇄 전화 : (02) 503 - 7764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함.

구독문의 : 자료출판실(571-0363)

